

중국을 주제로

[제 16 호, 1992. 3 / 4]



■ 특집/6호문건

中國語文宣教會

목 차

◆ 말 씀	
· 배부른 후에 / 박종배 목사	2
◆ 특집	
I. '6호문건'의 내용과 영향에 대한 첫 글	4
II. '6호문건' 관련보도기사	10
III. '6호문건' 전문	12
◆ 중국선교세미나	
· 중국성도들의 영성 현황 / 주지호 목사	17
◆ 고수칼럼	
· 용서에 대하여 / 안병국 교수	22
◆ 중국기독교인물 소전	
· 목사와 기업을 겸했던 뛰어난 목사 - 宋嘉樹	24
◆ 중국의 민속풍물이야기	
· 북경의 正月	26
◆ 중국어로 찬양을!	27
◆ 중국성도의 간증	
· 만족한 삶 새길을 따라서	28
· 십자가의 영광	29
·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30
◆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	
· 산상수훈	32
◆ 한자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34
◆ 중국선교참고도서 안내	36
◆ 중국여행상식	38
◆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중국동향	40
◆ 중국을 위한 기도제목	49
◆ 중국어사역자 고급훈련반 스케치	50
◆ 알림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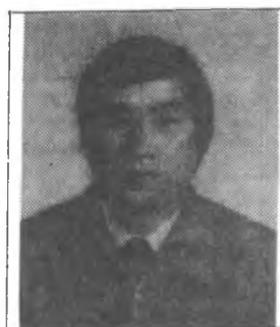
표지설명: 中國 西安市의 거리에서 카드게임을 하고있는 모습

중국의 남자들을 대부분이 도박을 즐긴다.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마지막돈 까지 다 걸고 도박을 하는 도박꾼이다. 도박성이 짙은 거리의 카드게임은 西安市와 같은 큰 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은 중국카드 보다 서양의 카드로 놀이를 즐긴다.

6명이 공원에서 동그렇게 원을 만들고 쭈그리고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고 그들의 주위를 구경꾼들이 둘러싸고 있다. 그 구경꾼 중에는 놀음꾼이 빠져나올 경우 자신이 들어가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배부른 후에

박종배 목사 (반월중앙교회)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요 6:12)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부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 거두신 사건은 마태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 14:13-21, 막 6:32-44, 눅 9:10-17, 요 6:1-15). 이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즉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영적인 필요는 물론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빌립과 같은 계산적이며 타산적인 자세보다 안드레같이 순종하는 자세를 통하여 일하신다.’ ‘예수님은 본문의 소년처럼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헌신을 통해서만 큰 기적을 행하신다.’ 등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배부른 후에, 다시 말하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취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2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배부른 후인데 그까짓 남은 조각들이야 버린들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 조각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라”는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만의 독특한 관찰로서 절약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당시 가난한 서민들의 값싼 음식으로 배고플 때에는 반가운 것, 고마운 것이지만 배부른 후에는 눈에 차지 않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유의치 않고 버리는 것들을 절약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개척교회 당시에는 교인 한 사람이, 비록 시원찮고 변변치 못한(?) 교인일지라도 귀한 존재로 보여지나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는 별로 신경이 쓰여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는 격입니다.

“조금도 버리지 말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아 들여라”(공동번역) 이 말씀은 경제가 발전되고 생활 형편이 나아짐으로 사치와 낭비, 소위 말하는 ‘과소비’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톨의 쌀을 아까와하던 것이 불과 3.40년 전인데 이제는 음식물이 남아돌아, 버리는 부분이 먹는 부분보다 더 많은 실정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물의 분량은 자그만치 전체의 30% 이상이며 하루에 2백억 원어치의 먹거리가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화외식 등으로 먹고 마시는 데만 연간 10조 원이 넘게 소비된다는 충격적인 보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한쪽에서는 이처럼 식생활의 과소비와 먹거리에 대한 흥대가 상습화되었다는 것은 창조주의 은혜를 그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예수께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15절)

오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목격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로 단정짓고 그들의 지도자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14절) “예수께서는 그들이 달려들어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는 꾀새를 알아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피해 가셨다.” (15절-공동번역)

굶주린 무리들을 배부르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떡을 먹고 열광하는 군중들을 떠나셨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예수님의 자세가 그립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도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뒤를 따라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막1:37)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대접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병자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어 나았을 때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접 받는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한 후에 자기들을 신들로 추앙하려는 무리들에게 “우리도 사람이라”(행14:15)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 10:26) 환영받고 섬김을 받고자 할 때마다 섬기러 오셨다고 하면서 환영하는 군중들을 피해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예수께서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 가시다 저을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 14:23)

무리들을 배부르게 하신 다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오른 목적이 기도하기 위함이었으며 산은 혼잡한 무리들과 격리된 영적 교제의 장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여 무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한 후에도 기도하려 가셨음을 봅니다.

배고플 때에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배부른 후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 더욱 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사 전의 기도와 함께 식사 후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플 때에 찾던 하나님을 배부른 후에도 잊지 맙시다. 어려울 때에 믿던 하나님을 형통할 때에도 의지 맙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곤고할 때보다 평안할 때에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고난중에서보다 형통할 때에 위기가 옴을 체험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며 수치를 당한 것은 홍수 이후, 즉 평안할 때이며, 다윗이 범죄한 것도 왕이 된 후 즉 배부르며 한가한 때였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배부른 후에’, 예를 들면 교인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진 후에, 예배당을 건축한 후에 종종 시험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끝으로 배고플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진 윗시아 왕이 ‘배부른 후에’ 하나님을 떠난 슬픈 기록을 함께 찾아 봅시다.

“제가 강성하여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대하 26:16) ㅎ

‘6호문건’의 내용과 영향에 대한 첫 글

(연구부 제공)

키 문

91년 2월 5일 중공중앙, 국무원은 종교문제와 관련된 한 통지문을 발표하여 국내의 불법종교단체에 대하여 특히 침투와 화평연변에 참여한 군중단체를 단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종교관련 문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몇가지 통지」라고 이름한 이 문건은 초고가 1990년 12월의 전국종교공작자회의중에서 토론되었다고 한다. 두 달 후 《六號文件》이라 칭해지는 이 《通知》가 정식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외부에 이 《通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려지게 된 것은 얼마전의 일이다.

본글의 목적은 《六號文件》의 내용과 배경과 정신을 분석함으로써 6·4사건 이래의 중공의 종교정책을 보다 잘 이해하려는 데 있다. 1982년의 《十九號文件》과 비교해보면 당국이 종교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태도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중국 각처의 많은 지방에서 온 종교문건 및 교회소식을 통해서 본문은 특히 이 《通知》가 각 성, 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황 및 기독교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살펴본다.

(一) 《六號文件》의 대강의 내용

우선 우리 이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요지를 종합해 보자.

유의할 만한 사실은 《通知》의 도입부분에서 「종교계인사의 애국주의, 사회주의 각오의 제고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적대세력이 줄곧 종교를 이용해서 ‘和平演變’ 전략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왔으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해서 침투와 파괴활동을 해왔다고, 비판하였다. 문건은 또 「민족분열주의자들도 종교를 이용해서 소요와 문제를 일으키려고

선동하고 있으며 당의 영도와 사회주의제도에 대해서 공격하고 조국통일과 민족단결을 파괴해 왔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적대 세력은 「불법조직을 결성하고 우리들에게서 사원과 교회당의 주도권을 빼앗아 가며, 「불법적으로 경문학교(성경학교), 수도원, 신학원을 세워서 청소년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문건은 심지어 「많은 기층에서는 종교를 이용해서 국가행정, 사법, 학교교육을 간섭하는 상황이 출현하고 있다.」까지 표시하고 있다.

이 《通知》는 계속 《十九號文件》을 계속 진

지하게 관찰·집행하여 「법에 따라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를 하며 종교를 이용해서 자행하는 위법범죄활동을 저지하고 타격을 가하며 해외종교적대세력의 침투활동을 단호히 저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通知》문건은 6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 (1)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찰시행한다.
- (2) 법에 의거하여 종교사무를 처리한다.
- (3) 애국종교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한다.
- (4) 종교를 이용해서 자행하는 범죄활동에 타격을 가한다.
- (5) 종교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의 진용을 갖춘다.
- (6) 당의 종교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내용적으로는 《六號文件》과 1982년의 《十九號文件》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어떤 곳은 두 문건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통지는 「모든 종교활동장소는 다 법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새로운 종교활동장소의 개방은 현이상의 인민정부의 기준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982년의 문건 가운데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강제적으로 제지하지 말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는가 하면 크리스찬은 가정집회에서 종교활동을 행하라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자칭 전도인의 전도와 포교활동 및 여러 가지 불법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 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개설한 경문학교(성경학교)와 신학원을 단속해야 한다.」에 관한 지시는 단지 1991년의 《通知》에만 보이는 것이기도 하며 중국내 종교상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十九號文件》도 「외국종교세력 중의 모든 적

대세력의 침투를 단호히 저지하라」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는 또 「우리 나라 종교계는 각국종교계인사와 상호방문과 우호왕래를 하여 종교학술문화의 교류를 할 수도 있고 해야 한다」고 긍정했다. 게다가 이런 교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하나도 없다. 이와 반대로 《六號文件》은 곧 「종교단체가 해외 종교조직과 종교인사를 초청과 내방이나 초청에 응한 방문은 쥘의 일급 인민정부나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중대한 섭외활동은 국무원에 알려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표명하였다. 심지어 「비종교단체가 종교적 배경을 가진 각종 단체나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종교계인사의 내방을 요청하거나 여행을 시켜줄 때는 종교사무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通知》가 「국무원 종교사무국은 마땅히 종교사무와 관련된 행정법규의 기초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또 《十九號文件》처럼 제정할 때 「종교계대표인사와의 충분한 의논을 거친 후」라는 점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通知》는 더욱이 각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지방의 종교사무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는 데 기준을 한다.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六號文件》은 특별히 성, 시와 종교공작 임무가 복잡한 현(區)에서는 마땅히 「종교공작기구를 설치하여 정부기구에 편입시켜야 한다.」 종교공작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鄉鎮에서도 「전담간부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문건은 《十九號文件》의 지시와 비교할 때 엄격하고 매우 치밀해졌다.

(二) 《六號文件》의 배경과 정선

이상에서 언급한 《六號文件》과 《十九號文件》이 내용상의 차이 외에도 사실 양자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더욱 큰 차이가 있다. 《十九

《六號文件》은 1982년 3월에 반포된 것으로 그 목적은 「左」의 잘못된 경향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당의 종교정책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이 문건은 통전의 각도에서 종교문제를 대처하려는 것으로 「맑스주의자와 애국적 종교신도는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위해서 함께 분투하는 통일 전선을 결성할 수도 있고 결성해야만 한다.」 그러나 《六號文件》의 배경은 6.4사건과 그 후의 동구의 급변이다. 설사 일찍이 강택민(江澤民)총서기가 지적하였던 것 처럼 이 《通知》가 《十九號文件》보다 진일보한 것일지라도 三自에 가까운 한 교회인사는 《六號文件》을 퇴보로 보았다. 그 중에 정부의 「법에 따라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여러 가지 조항은 의심할 바 없이 중공의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불신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十九號文件》에 반영된 통전정신과는 반대로 《六號文件》은 「법에 의한 처벌과 관리의 강화」를 강조하였다.²⁾ 사실상 현재의 중공 지도자들에게는 종교문제는 이미 82년처럼 「인민내부에 속하는 모순」으로 보여지지 않고 도리어 「침투와 반침투, 전복과 반전복, “화명연변과 반화명연변”의 투쟁으로 비친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의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공은 부득불 행정간섭으로 중국 내지의 종교 및 그 발전을 통제하고 불법적인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천주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및 티벳불교는 분명히 이 《通知》가 대처하려고 하는 주요 종교이다. 해외적대세력은 이런 종교를 이용하여 침투활동을 한다고 지적받고 있으며 국내의 종교 사무를 간섭할 뿐 아니라 더욱 중국의 종교를 통제하려고 기도한다고 지적당하고 있다. 종교를 이용해서 「조국통일과 민족단결을 파괴한다」는 지적은 기본적으로 이슬람교와 티벳불교를 믿는

「민족분열주의자」를 지적인 언급이다. 중공은 이런 종교단체 및 그 활동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通知》중에 이미 각 성, 자치구와 직할시를 근거지로 삼아 각종 규정을 가했으며 따라서 지방의 종교행정법규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六號文件》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응은 어떤가? 중앙에서 반포한 문건으로서의 그 효력은 어떤가? 문건이 각 성과 시에서 실시되는 상황은 어떠한가?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같은 애국단체의 역할은 이 문건으로 영향을 받는가? 가정교회의 발전도 역시 이 문건 때문에 악영향을 받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다음부터 토론할 문제들이다.

(三) 《六號文件》의 영향과 실시

중국교회사정에 밝은 여러 인사들은 지방의 고위관리와 마찬가지로 이 문건에 대해 그다지 중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유사시의 참고의 필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口頭통지를 모든 문건보다 더욱 중시하였으며 더욱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하물며 현재의 풍조가 바로 「위에는 정책이 있으나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것이기에 어떤 성이나 시에서 완전히 중앙의 지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지나치게 「左」편향이거나 지나치게 「右」편향일 수가 있다.

가. 지방적인 성격의 종교규정의 반포

전체적으로 볼 때 1989년말부터 줄곧 대륙의 종교형세는 느슨해진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더욱 긴장되어 가는 추세에 있었다. 가정교회는 조사당하고 폐쇄되었으며 강제적으로 등록해야 했으며 순회전도자의 체포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져 오고 있고 각기 다른 지방정부에서 반포되고 수정된 《종교활동 관리 규정》 역시 해외에까지 전해졌다. 입수된 소식은 《六號文件》이 각 성과 시에 하달되고 각 현, 향진에까지 전달된 후 연해

나 내륙지방을 막론하고 모두 그 종교행정법규를 제정 반포하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많은 규정이 현지의 기독교회를 대처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다.

많은 지방에서 정해진 종교법규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래의 각각에 중점이 있다.

- (1) 많은 종교활동장소를 법에 따라 등록케 하고 관리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 (2) 자칭 전도인의 불법활동을 단호히 저지할 것.
- (3) 해외적대세력의 종교를 이용한 침투활동을 단호히 저지할 것.
- (4) 입교수속을 엄격하게 하고 교역자들은 정부의 관련부서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³⁾

어떤 지방 규정의 내용은 비교적 허술하나 어떤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심지어는 교회가 만약 당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맞을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절강성의 어떤 현의 《기독교관리규정에 관한 통지》는 모든 등록을 거치지 않고 기준을 얻지 않은 집회소는 계속 집회를 가질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부서는 「종교물품이나 기자재의 몰수」를 포함하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대처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이 《通知》는 또 만약 외부에서 온 순회전도자가 이 현에 머물면서 불법적인 활동을 자행한다면 공안국은 그들을 엄히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가지는 이 《通知》에 근거하여 신도가 만약 간부가 이 종교관리임무를 수행할 때 손상을 입히거나 방해하면 그 해당 책임자는 공안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며 심하게는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나. 「三自」의 역할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문건은 해당 현의 종교활동장소는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해당지역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의할 만한 사실은 그 중에 「三自」의 집회처에 참가하기를 원치

않는 모든 신도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데 그런 후에 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의 기준을 얻기까지는 보고서를 해당 현의 종교사무국에 제출해야 비로소 집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신도들에게는 삼자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하나 늘어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등록하여야 하며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 규정은 의도적인지의 여부를 떠나서라도 삼자의 역할을 축소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만약에 신도가 직접 등록하고 삼자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없다면 삼자의 존재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삼자가 발휘할 수 있는 統戰효과는 어찌 이것으로 인해 좌절당하지 않겠는가?

사실상 최근의 보도에서 다른 정부부서의 종교에 대한 간섭이 더욱 증가되어 가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 중에 특히 공안국 및 국가안전부부가 가장 뚜렷하다. 예를 들어 작년 9월 중에 절강성 은주시 부근의 한 현에서 공안들이 한 가정교회를 습격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약 2천 명의 신도들이 참석하여 세례식을 갖고 있었는데 많은 수의 공안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하늘을 향해 총을 발사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많은 공안원들이 무대에 뛰어들기 전 세례식을 집전하는 전도자를 심하게 때렸다고 하며 이후에 그들을 체포하였다. 나중에 신도들이 은주시 종교국에 고발했으나 종교국은 이 사건의 관련 사실을 부인하였다.⁴⁾ 이 밖에 광주에서는 林獻羔 형제가 작년 11월 중에 전화로 알리기를 공안원은 최근 일 개월내에 신도들에게 다시는 그 집의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했다⁵⁾고했다.

같은 달 제18회전국공안공작회의에서 국가 안전부수령인 喬石은 해외의 반동종교세력을 단호히 타격하여 「그 존재와 발전을 절대 허용하지 말 것」⁶⁾을 강조하였다. 작년 10월 27일 호주상인인 스티슨(Noel Switson)이 집에서 성경사경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추방당했다. 이후 상해 공

안국은 최소한 6명의 이 회(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외국상이 선교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추방당했다.” 우리는 「법에 의해 처벌하고 관리를 강화한다.」는 정신하에 「三自」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수동적이고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애국종교단체로서의 「三自」는 물론 아직도 지방에서 학습반의 양성에 협조한다든지 중앙의 종교정책을 전달한다든지 암암리에 관계당국에 가정교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면에서 이용가치가 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중국어린이들)

다. 교회의 반응

국내교회지도자와 신도는 대개 「겉으로는 풀어주고 안으로는 조인다.」는 말로서 현재의 교회형세를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관방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신앙자유를 향유하는 것과 같으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더욱 강화된 통제를 받는다. 등록을 거절하거나 해외의 종교조직이나 인사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최근에 받아본 소식들은 적지않은 가정교회와 집회처가 등록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어떤 곳은 「三自」에 접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원래의 목자

는 모두 교회의 사역을 그만두도록 명령을 받거나 권유받는다든가 점을 전해 주고 있다. 그리고 벽촌에서는 정부가 현지교회의 지도자에게 「三自」를 성립하고 관련부서의 관리를 따르도록 설득하고 있다.⁸⁾ 들리는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부득이한 상황하에서 정부에 등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반항할래야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가정교회지도자들은 정부의 요구를 만족시킨 후에 오히려 그들이 더욱 더 교회의 목양에 정신을 쏟을 수 있고(수많은 三自는 교회를 접수하여 관리할 인원이 부족하다)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집회처소를 개척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실상 많은 지방의 교회는 등록을 받아들인 후 정부가 반포한 종교활동규정에 모두가 다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위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정부가 제정한 「三定(定點, 定片, 定人)정책」을 무시하고 여전히 외부인사들을 청하여 양육을 하며 교회자체의 목자도 불법인 「순회전도자」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려고 하질 않으며 계속적으로 지정범위 밖의 벽촌에서 신도들을 섬긴다. 물론 그들도 정부쪽에서 개설한 학습반에 참여하여 정부쪽과 표면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으나 그들은 오히려 암암리에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꼭 종교규정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는다.⁹⁾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은 정부의 통제가 비교적 느슨한 지역에서 나타난다. 어떤 지방정부는 강경한 수단으로 비등록교회를 대하며 교회지도자를 구류하고 교회재물을 압수하며 불합리한 벌금을 부과하며 심지어 멋대로 가혹한 형벌을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사 이러한 심각한 압력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많은 교회가 「차라리 옥으로서 깨어질지언정 기와로서 온전하게 보전하지는 않겠다.」며 소그룹형식으로 집회를 가지며 당국의 소란을 피하려고 애쓴다. 기묘한 것은 원래의

소그룹이 신속히 발전하여 사람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소그룹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의 압박을 받지 않았다면 많은 교회지도자들은 이로 인하여 신도들이 소그룹방식으로 집회를 갖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나 바로 신도의 분산으로 복음은 점점 더 확산되었고 교회도 더욱 성장하였으니 하나님의 숨씨가 얼마나 놀라운가?

참으로 중국교회사를 회고해 보면 교회의 흥왕은 종종 신도들이 고난과 시련을 만남으로써旺음을 발견하게 된다. 현재 가정교회가 겪고 있는 고통은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그의 기묘한 역사를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四) 결론

작년에 발표된 《六號文件》은 1982년의 《十九號文件》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행정수단을 통해 종교를 간섭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六號文件》의 배경을 살펴보면 중공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권에 위협이 되는 모든 중공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제를 강화하고 심지어 이전에 강조되던 통전의 정신까지도 부차적인 위치에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三自」의 통전역할은 자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三自가 담당하고 있는 중국교회의 대표역할도 도전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은 많은 지방정부의 규정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정부에만 등록하고 삼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말의 제 5회 전국기독교회의를 통해 三自와 「基協」의 전망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六號文件》이 등록하지 않은 가정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지방의 이 통지에 대한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압력은 증가될 것이나 이 점은 교회지도자들이 예상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평정한 심리상태로 대

처하고 있다. 사실상 과거 수십 년의 많은 비바람을 거친 중국의 신도들은 결코 고난이 낯설지 않으며 반대로 주님을 위한 수고였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여겼다. 문제는 오히려 해외의 지체와 가정교회가 접촉할 때 대단히 신중할 것이 요구되는데 중공이 현재 외래의 종교단체와 인사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며 특하면 그들에게 「침투」와 「화평연변」이란 죄명을 씌우는데, 중벌을 받는 측은 그들과 연계한 내지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중국의 형제자매를 돌보아주시도록 각 사람이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통해서 중국교회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囑

-
- 주) 1) 《橋》 第49期 (1991.10~11) p.3
 2) 《公教報》 1991.10.25
 3) CNCR 1867(1991.10.18)
 CNCR 1886(1991.12.6)
 News Network International,
 NNI(1991.11.8). p.4~5
 4) NNI (1991.11.8) p.11~12
 5) 《明報》, 1991.11.13.
 6)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
 1991.11.11
 7) SCMP 1991.11.13
 8) CNCR 1886(1991.12.6),
 CNCR 1882 (1991.11.22).
 9) CNCR 1867 (1991.10.18).



‘6호문건’ 관련보도기사

(연구부 제공)

중공은 명령을 내려 당원의 종교신앙을 엄금함

중공은 최근에 문건을 발표하여 6개항의 지시를 하여 「불법」종교단체에 대한 단속할 것과 해외적대세력과 결탁하여 국가 통일에 해를 끼치는 자를 엄히 징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中國時報」홍콩주재 기자 소옥훙(蘇煜欽)의 91년 10월 25일 전신,

중공은 최근에 문건을 발표하여 공산당원이 종교를 갖는 것을 엄히 금하고 해외적대세력과 결탁하여 국가 통일 및 사회안정을 해치는 사람을 엄히 징계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불법종교단체를 단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중공은 대륙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적대세력을 분해·와해시키고 범법자를 엄히 징벌하기 위하여 최근에 강택민과 이붕이 친히 전국종교공작회보를 주관하는 외에도 천주교와 기독교 및 회교에 대처하기 위한 관리문건인 「종교문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몇가지 통지를 발표하였다.

91년 10월 26일자 《公教報》는 중국대륙소식통을 인용하여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통지문은 모두 6가지 항목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통지문은 이미 종교담당자의 손에 전해져서 열람되었으며 아울러 구두로 각 종교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현재

대륙이 직면한 종교문제는 해외적대세력이 종교를 이용하여 화평연변의 전략을 추진하고 대륙에서 침투 및 파괴활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문은 또 많은 국내의 적대분자들이 이미 불법조직을 결성하여 정부가 인가한 사찰이나 교회당의 주도권을 획득하려고 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세워진 어떤 종교학교와 신학원은 청소년을 입학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신도는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행정이나 사법 및 교육에 간섭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문건은 또 정부는 반드시 「종교를 이용해서 파괴활동을 자행하는 반혁명분자와 기타형사범을 철저히 타격을 가해야」한다. 검경과 사법부의 상호협조하에 법에 따라 범죄활동에 타격을 가하며 모든 불법종교조직을 확고히 단속해야 하며 관련된 인사는 처벌과 비판과 교육을 해야한다.

문건은 종교담당관리에게 “종교계에국역량을 단결·이용하여 적대세력을 분해·와해시키고 그들에게 영향과 통제를 받는 군중들을 단결시키고 소수의 골수분자들을 고립시키라”고 지시하였다.

문건은 대륙의 종교관리업무의 범위에는 마땅히 모든 종교활동장소를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허가를 얻지 않은 전도인이 전도활동하는 것을 금지시키며 동시에 수입된 종교서적과 밑받침품 및 기타 종교선전물(팸플렛 등을 의미함)을 검사하고 모든 반정부선전이나 반동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은 몰수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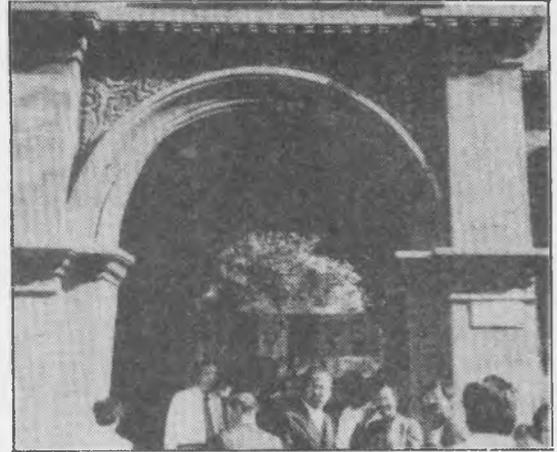
문건은 또 해외에서 대륙의 종교단체에 보내준 지원금의 처리문제에서 해외의 대량의 지원이나 해외종교단체의 해외방문초청은 모두 반드시 정부의 비준을 얻어야 하며 종교단체는 출국하려고 하는 인사에 대한 신상자료를 정부에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문건은 또 특별히 공산당원은 종교를 믿거나 종교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런 류의 활동에 참여한 자는 교육을 받거나 출당 내지는 당적박탈을 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통지문은 현재 대륙에는 여전히 「공민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거나 교회나 사찰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종교단체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간섭하는 사례와 종교재산반환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홍콩의 CCRC가 9월 27일부로 출판한 「중국뉴스 및 사회보도」의 평론은 서방에서 유입된 종교는 다시한번 새로운 제국주의자들이 화평연변을 획책하고 중국을 자본주의화 하려는 도구로 비취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륙은 규정을 만들어 종교를 통제하기로 했다고 통고함

중공은 국내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종교활동에 불안을 느끼고 혹 “화평연변(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사회주의전복)”이 발생할까를 두려워하여 중앙에서는 금년에 “中發六號”문건을 발표하여 일



(北京基督教會)

련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종교활동과 신앙자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들이 있다.

- ° 모든 종교활동장소는 마땅히 등록해야 한다.
- ° 해외종교단체나 개인인 종교사무에 관여하거나 전교활동을 할 수 없다.
- ° 종교단체가 만약 해외의 대량의 지원을 받거나 해외종교단체나 개인을 초청하거나 방문요청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省政府나 종교사무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 만약 중대한 섭외사무가 있다면 반드시 국무원에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중국공산당원은 종교를 믿을 수 없으며 종교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 ° 당의 종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 ° 모든 “애국”종교단체는 당과 정부의 지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

종교관련 문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몇가지 통지

(번역: 연구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黨委와 인민정부, 각 大軍區 당위, 중앙과 국가기관의 각 부서, 軍委 各 總部, 각 軍兵 種 당위, 각 인민단체 : 당의 제11회 三中全會 이래 각급당위와 정부 및 애국 종교단체의 공동노력하에 당의 종교정책은 점차 철저히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종교공작은 뚜렷한 성과를 내었다. 종교활동장소는 설치, 개방되었고 애국종교단체는 회복되고 설립되었으며 공민의 종교신앙자유의 권리와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종교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과 정책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행되는 위법 종교활동은 법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종교활동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상적이다. 종교계인사의 애국주의, 사회주의의 각오는 높아졌으며 그들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고 당과 정부의 종교정책의 철저한 시행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회안정과 민족단결을 유지보호하고 조국통일을 촉진했으며 국제적인 우호적 내양 등의 측면에서 많은 유익한 일을 했다. 당이 영도하는 각 민족 종교계 애국통일전선이 더욱 공고해지고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각 민족의 신도들이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실천은 당과 정부의 종교정책이 정확함을 증명하였으며 종교공작이 대체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해외적대 세력이 줄곧 종교를 이용해 "화평연변" 전략을 추

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는 점과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투와 파괴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민족분열주의분자도 종교를 이용해 선동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당의 영도와 사회주의제도를 공격하고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한다. 어떤 지방에서는 소수 적대세력의 활동이 창궐하고 있는데 불법조직을 결성하여 우리들에게서 사원과 교회당의 관할권을 빼앗아 가려 하고 있다. 어떤 자들은 불법적으로 經文學校(성경학교)나 수도원, 신학원을 세워서 우리들에게서 청소년을 빼앗아 가고 있다. 어떤 사원은 금지된 종교의 봉건적인 특권이나 수탈과 압박을 부활시켰으며 많은 기층에서는 종교를 이용해서 국가행정, 사법, 학교교육을 간섭하는 상황이 출현하고 있다. 동시에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데는 아직도 적잖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어떤 지방에서는 공민의 종교신앙자유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원이나 교회당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종교단체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간섭하며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종교재산과 사원, 교회당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방해하고 있다. 종교문제나 종교문제에 대한 처리를 잘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모순은 가끔 발생한다. 각급 당위원회나 정부는

필히 이런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종교공작을 대단히 중시해야 한다.

종교문제를 정확히 대처하고 처리하는 것은 중국사회주의건설사업 중의 한 중요한 문제이며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다. 종교문제의 원활한 처리는 사회안정을 유지하며 민족단결을 증진시키며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고 4개현대화건설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경시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중공중앙의 중국 사회주의 시기 종교문제에 관한 기본 관점과 기본정책(19호 문건: 중국어문선교회가 편역한 중국선교핸드북의 부록으로 실려 있음)》은 종교공작을 지도하는 중요한 문건으로 계속 진지하게 철저히 집행되어야 하며 종교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후 일정 기간 당과 정부의 종교에 대한 공작의 주요임무는 당의 종교정책을 진지하게 관철시키며 국민의 종교신앙의 자유의 권리를 유지 보호하며 신도와 종교계인사의 애국주의와 사회주의교육을 강화하며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부추기며 그들의 유익한 활동을 지지하며 종교계와 애국통일전선을 굳건하게 발전시키며 법에 따라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를 하며 종교를 이용해서 자행하는 위법범죄활동을 저지하고 타격을 가하며 해외종교적대세력의 침투활동을 단호히 저지하며 안정을 유지하고 단결과 조국통일을 증진하며 중화의 진흥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종교관련 문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몇가지 통지」는 아래와 같다.

(1)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을 전면적으로 철저히 시행한다.

종교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종교문제를 대처하는 데 대한 장기적인 기본정책이다. 종교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에게는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는데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있으며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나 개인도 국민이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종교활동은 반드시 법과 정책의 범위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반드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종교를 이용해서 당의 영도나 사회주의의 제도를 반대할 수 없으며 국가 통일, 사회안정, 민족단결에 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사회나 집단에 손해를 끼쳐서도 안되며 다른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방해해서도 안된다.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종교를 이용해서 국가행정, 사법, 학교교육 및 사회공공교육을 간섭해서는 안되며 종교를 이용해서 의무교육의 실시를 방해해서도 안되며 이미 폐지된 종교의 봉건적 특권과 압박 수탈제도를 부활시키려 해서도 안된다. 종교를 믿거나 안믿는 군중간에,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교파를 신봉하건 간에 상호 존중해야 하며 상호 단결해야 한다. 대다수가 믿지 않는 지방에서는 소수의 믿는 군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며 대다수가 믿는 지방에서는 소수의 믿지 않는 군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서 믿는 군중과 믿지 않는 군중을 단결시켜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힘을 쏟도록 해야 한다.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는 데는 국민의 종교신앙의 권리와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범당하는 것을 확고히 바로잡아야 한다. 종교활동장소가 지나치게 적은 지방에서는 필수적인 종교활동장소문제를 잘 처리하고 역사가 물려준 종교부동산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종교를 믿는 수많은 군중의 단결과 국가와 사회의 안정에 유리하게 한다.

(2) 법에 의거하여 종교사무를 처리한다.

법에 의거하여 종교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정부가 종교관련 법률, 법규와 정책의 철저한 실시를 위하여 행정관리와 감독을 한다는 것을 지칭한다. 정부는 법에 따라 종교단체와 사원 및 교회당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각 종교 성직자들의 정상적인 교회업무처리를 보호하며 불법분자들의 종교를 이용한 혼란과 위법범죄활동을 방지하고 저지하며 해외적대세력의 종교를 이용한 침투를 막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는 종교활동이 법률과 법규 및 정책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지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정상적인 종교단체의 내부사무를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활동장소는 모두 법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달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등기를 거친 종교활동장소는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정부의 종교사무부서의 행정지도하에 애국종교단체와 성직자들이 민주관리의 원칙에 따라 관리를 책임진다. 새로운 종교활동장소의 개방은 현 이상의 인민정부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자칭 전도인의 전도와 포교활동 및 여러 가지 불법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 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개설한 경문학교(성경학교)와 신학원을 단속해야 한다.

중국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독립 자주, 自辦의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평등과 우호의 기초하에 종교 부문의 대외 교류를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전개하며 해외종교적대세력이 우리나라 종교를 통제하려는 기도를 단호히 저지하여야 한다. 어떠한 해외의 종교단체와 개인이 중국의 종교사무를 간섭하거나 중국내에서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사원을 건립하거나 선교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종교서적,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나 기타 선전품은 정부의 관련 부서가 정한 관리방법에 따른 관리를 강

화한다. 사항기본원칙(사개堅持라고도 하는 것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주의견지, 공산당영도견지, 프롤레타리아 독재견지, 사회주의 견지를 말한다. :역주)의 반대나 정부를 반대를 선동하는 등의 반동적인 내용은 법에 따라 몰수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해외에서 오는 것이나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후원금과 선교경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종교단체와 사원 및 교회당이 외국의 종교단체나 종교인에게서 대량의 연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省의 일급 인민정부나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종교단체의 해외 종교조직과 종교인사의 초청과 내방이나 초청에 응한 방문은 省의 일급 인민정부나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중대한 섭외활동은 국무원에 알려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종교단체가 종교적 배경을 가진 각종 단체나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종교계인사의 내방을 요청하거나 여행을 시켜줄 때는 종교사무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경제무역·과학기술·문화·교육·위생·체육·여행 등 부서가 대외교류와 협력을 할 때나 해외종교조직과 그 부속기구 및 개인에 미치는 관련 협력조항에 서명할 때 선교나 종교기구설립이나 사원이나 교회당건립 등의 종교적인 조건을 포함시킬 수 없다.

종교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 국무원 종교사무국은 마땅히 종교사무와 관련된 행정법규의 기초에 힘을 쏟아야 한다. 各省, 자치구, 직할시는 국가의 관계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현지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의 종교사무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기층인민정권은 종교공작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당과 국가의 종교정책을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며 성직자와 신도들이 종교활동장소를 잘 관리하고 법에 따라 종교활동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3) 애국종교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한다.

애국종교단체는 당과 정부의 단결과 종교계인사 교육의 교량이다. 애국종교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은 당의 종교정책을 잘 집행하고 관철하는 것으로 종교활동 정상화의 중요조직을 보증하게 한다. 많은 지방에서 애국종교단체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현상을 개선하려면 그들이 자신의 건설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하며 자신의 장점과 규정에 따라 자주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그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그들의 자양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과 봉사 및 사회공익사업을 격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그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필요를 창조하는 조건이 되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경비 및 많은 지방의 성직자의 생활비를 도와야 한다. 모든 애국종교단체는 모두 당과 정부의 지도를 받아들여야 하며 국가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자아교육의 전통을 발양해야 하며 자주 성직자에 대해서 애국주의, 사회주의, 시사정책, 국가법률, 법규 등의 교육을 행해야 하며 국가를 유지하고 민족이익을 끊임없이 제고하여야 하며 독립자주자판 원칙의 자각성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종교계인사의 절대다수는 애국적이고 법을 준수하는데 당과 정부에 대한 그들의 오랜 협력은 국가와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신도들을 연계시키며 종교업무를 잘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된다. 각급 당정의 영도기관은 애국종교단체와 종교계인사의 의견과 건의를 자주 청취하여 종교방면에 미치는 중요한 문제는 그들과 충분히 의논해야 한다. 애국종교단체가 종교학교를 잘 처리하도록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당의 영도를 받아들이며 사회주의의 길을 고수하며 조국통일과 민족단결을 유지하며, 종교적인 학식을 갖추고 신도들과 연계가 가능한 성직자들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지금 즉시 사원과 교회당 및 기타 종교활동장소를 담당할 인원을 배양해야 한다.

(4) 종교를 이용해서 자행하는 범죄활동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

법에 따라 국민의 종교신앙의 자유권과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종교를 이용하여 파괴활동을 자행하는 반혁명분자와 기타 형사범을 반드시 법에 따라 단호히 타격을 가해야 한다. 각급 공안부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종교문제를 방자하여 군중을 선동하여 말썽을 일으키고 사회치안을 어지럽히며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해치는 행위를 단호히 저지하여야 한다. 형법을 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해외적대세력과 작당하여 국가안전을 해치는 주모자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불법종교조직은 엄히 단속해야 하며 위법활동에 종사하는 종교장소는 사정이 경미한 경우는 비판교육을 받게 하고 기한을 정해서 교정하고 누차 교정을 하지 않거나 사정이 심각한 경우는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일을 처리할 때에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성격의 모순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확하게 처리하고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종교계애국역량을 단결시키고 믿어 주면서 적대세력을 분화, 와해시키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통제되는 군중은 단결시키고 소수의 주모자는 고립시킨다.

국가 사법부서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행하는 범죄활동을 처벌할 때 법에 따라 사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공안과 검찰과 사법기관은 상호 협조하여 법에 따라 범죄활동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

(5) 종교공작기구를 건설하게 하고 종교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의 진용을 보다 잘 갖춘다.

종교관련 문제를 더욱 잘 처리하기 위하여 종교공작기구를 건설하게 한다. 省(自治區, 直轄市), 市(地, 州)와 종교공작임무가 많은 縣(區)은 정부에서 마땅히 종교공작기구를 설치하여 정부기구에 편입시켜야 한다. 일반적인 縣(區)은 이미 종교공작기구가 설립된 곳은 유지시키며 종교공작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관련부서와 합해 사무실을 설치하여 전담간부를 배치한다. 종

고공작업자가 있는 鄉鎮은 종교공작을 분담하게 하고 임무가 무거운 곳은 전담간부를 배치해야 한다.

종교공작간부의 양성을 한층 중시해야 하며 그들의 소질을 끊임없이 제고시켜야 한다. 종교공작간부는 맡고 있는 업무의 의의와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맑스주의철학과 종교이론, 당의 방침과 정책을 성실하게 학습하도록 하여 관련법률에 익숙하고 종교업무의 지식을 파악하여 종교계인사와 신도들을 잘 단결하도록 하여 스스로 보다 나은 정치적 소질과 우수한 업무기풍을 겸비하여 높은 전문지식을 갖춘 종교업무 관리가 되게 한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정치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생활면에서 종교공작간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6) 당의 종교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종교업무에 대한 지도는 주로 정치적 지도와 정치방향을 파악하고 중요한 정책방침을 파악하는 데 있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종교공작을 의사일정에 넣어서 종교공작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종교정책의 철저한 집행되는 상황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全黨과 각급 정부와 사회 각방면은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 종교업무를 잘 처리하여 종교와 사회주의사회를 상호 적응하게 해야 한다.

각급 당정책임자와 당위통전부서는 종교계대표 인사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그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당의 정책방침을 소개하며 관련상황을 통보하며 마음을 비우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그들이 업무 중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사상정치공작을 강화해야 하며 선전부서에서 수많은 군중에게 행하는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및 민족단결교육을 지도를 한다. 적극적으로 인민군중을 향하여 특히, 수많은 청소년을 향하여 변종유물주의와 사적유물주의(무신론을 포함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수많은 청

소년을 이상, 도덕, 문화, 기율이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양성시킨다. 노동조합과 공청단, 부련(婦女子聯盟)을 지도하고 도와서 건강하고 유익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하고 직공, 청년, 부녀자들이 업무와 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곤란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며 돕고 그들을 교육시켜 생노병사, 길흉화복 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대처하게 하고 과학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수립하게 한다. 종교에 미치는 작품을 출판하여 당과 국가에 위배되는 종교정책과 신도들의 종교 감정을 해치는 것도 허락하지 않지만 종교를 이용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 통일과 민족단결을 해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공산당원은 종교를 믿을 수 없으며 종교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종교활동에 참가하는 당원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하여 그들이 정확한 세계관을 갖고 무신론과 유신론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공산주의의 신념을 확실히 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 당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한다. 종교열광에 참여하고 선동하며 사원을 지나치게 지원하는 자는 비평교육을 엄숙하게 실시하며 교육을 거쳤으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자는 당적을 박탈한다. 기본적으로 전 인민이 종교를 믿는 소수민족지역에서는 기층에서 생활하는 공산당원이 어떤 종교색채를 띠고 민족 전통에 속하는 군중성 활동에 참가한 문제는 중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각 지방의 당위와 정부는 본통지를 받은 후 종교정책의 집행을 전면적으로 검사하는 기초위에 최근의 종교문제를 처리하는 경험과 교훈을 진지하게 총결하여 본지역의 실제상황과 결합시켜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성실하게 철저히 집행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와 정부는 검사된 상황에 대한 총결을 중앙, 국무원에 서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㉞

중공중앙 국무원

1991. 2. 5

중국성도들의 영성 현황

주지호 목사 (극동방송 중국어방송 담당자)

이 글은 2월 24일 본선교회가 주최한 중국선교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장소: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관).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할 때는 학술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험담으로서 실질적인 선교에 참고가 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주안점을 두었다.

요즘 주위를 살펴보면 이곳저곳에서 중국선교에 관한 세미나가 심심치 않게 열리고 있는데 한 가지 주위를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워낙 방대한 나라라 기독교 성도수만 하더라도 이제껏 그 통계가 정확히 잡히지 않는 실정이고 보니,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이 곧 일반적인 중국현황을 그대로 다 대변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 저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그저 하나의 참고 정도로만 여겨 주신다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먼저 앞으로 제가 드리게 될 이야기의 근거로 삼은 것은 두가지로 그 하나는 극동방송국과 아세아방송국으로 입수된 중국어 청취자의 편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현지에서의 직접방문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먼저 중국어 청취자의 편지에 대해 말하자면 극동방송국이나 아세아 방송의 개국 이래 중국각지에서 보내온 청취자의 편지는 약 13만통에 이르고 있다. 즉 한국에 있는 극동·아세아 방송국 외에 사이판이나 필리핀에 있는 지국까지를 망라해서 중국어선교방송을 듣고 반응해 온 것들인데 이것 모두를 다 분석할 수는 없고 1991년 한해 동안 답지한 약 8,000통의 편지를 분석해 보았

다. 지역적으로는 중국북단 요령성의 대련시부터 남부의 강소성, 복건성에 걸쳐 중국어 선교방송이 청취되고 있고, 중국어 표준말 방송외에도 필리핀지사 같은 곳에서는 광둥어, 민남어, 장어, 위그르어 등 5가지 지역 방언으로 방송하고 있다. 아무튼 이 청취자의 편지를 분석해 볼 때 다음 몇 가지의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방송을 듣고 편지를 보내는 적극성을 보인 연령층이 주로 11-30살로서 8,000여 통의 편지중 절반을 차지했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19-30살까지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젊은층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생, 또는 막 결혼한 젊은 이들이 선교방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선교적 차원에서 대단히 참고할 만한 것으로서 이들 연령층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며 사상이 개방되어 있고 현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안목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회상황을 여실히 반영해 주고 있다.

둘째로 편지를 보내 온 사람들의 영적상황을 살펴보면 약 30%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고 그 나머지 약 53%가 평신도이거나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믿겠다고 밝힌 사람들이었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거의 편지를 보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중국의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서는 대부분 목사라 할 때 그 연령이 70 내지는 80세가 보통이다.

세계.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중국선교에 있어서 문서선교에 적극성을 띄어야 하겠다는 점이다.

젊은 층은 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며, 특히 대도시의 중국대학생들은 이곳 대학생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그들을 상대로 하려면 다양한 책자를 통한 선교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주도는 신앙적 안목에서 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정학적으로 절묘한 장소로 전파 송신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현지 방문 때에도 확인했지만 그들은 방송을 열심히 듣고 있었고 또 대단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다음으로 현지의 직접방문에서 체험한 사례와 느낀 점들을 말씀드려볼까 한다.

한가지 신기한 것은 제가 마침 중국방문을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중국어문선교회의 전화부탁을 받았고, 이 세미나 직전에 귀국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를 위해 준비하셨음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한다.

사실 제가 중국에 가게 된 동기는 아세아 방송의 중국 평신도지도자를 위한 신학교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였다. 홍콩·싱가폴·대만·미국에 있는 중국어 방송과 미국 신학자와 연합한 이 프로그램의 총계획을 맡았던 관계로 이의 제작을 위해서는 대륙에 들어가 직접 현지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약 보름 동안 중국·홍콩·대만 출장을 가서 둘러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개방도시인 상해시, 그리고 복건성의 복주시(여기에 대우냉장고가 들어가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중국선교지로 부각되고 있는 광둥성 등 3 도시를 약 1주일 간에 걸쳐 방문하면서 광둥성·강소성·복건성·하남성·산둥성 등지에서 온 몇 분의 지도자를 만났다.

그 중 인터뷰한 인원이 18명이었고, 공개처소에서 예배와 가정교회 집회에 각각 1차례씩 참석하였고 마지막으로 비교적 엘리트 청년들이 많이 모인 사경회에 참여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아직 출판은 되지 않았지만 23편의 간증과 몇 편의 QT글들을 모은 산두(汕頭)의 한 성도의 글을 대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제가 느낀 점을 토대로 그 곳 대륙성도들의 영성특징을 간략히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그들은 아주 조심성이 있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깨어 있는 성도로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다.

저와 아내를 포함한 우리 일행도 중국에 가기 전에 미리 현지사정에 밝은 전문 안내자로부터 철저한 사전 주의사항을 교육받았다. 또 행동할 때마다 그 분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 그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두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제작진이 방송제작

을 위해 한 장소를 물색해 두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람들과 만나기로 약속된 상황에서 안내인이 돌연 모든 계획을 취소시켜 버렸다. 이유는 그 장소가 완전한 비밀보장이 안되어 있는 불안한 곳이라는 것이었다.

사경회로 모일 때도 장소는 주인이 함께 있지 않는 어느 교수 아파트였으며, 모임의 지도자는 초청된 나에 대해서 미리 불쾌하리만큼 꼬치 꼬치 캐묻고 어느 선까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를 확인하려 했다. 그런 다음에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었다.

汕頭에서 또 대학생을 상대로 선교를 하는 70세 정도의 한 의사부부를 만났는데 역시 저와 아내에 대해서 같은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 도중에 누가 노크라도 할라치면 받은 선물이며 책자를 옆방으로 재빨리 옮기고 난 후 문을 연다든지 하는 극도의 조심성을 보였다. 이것은 모두 그들의 사회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터득된 행동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험들은 애초 홍콩입국 때부터 우리가 겪었던 일이기도 했다.

우리는 입국비자 발급을 받으면서 직업이나 입국 목적을 기재할 때 꽤나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북경 아세아게임 이후 한국인 목사들이나 성도들의 행태에 놀란 중국당국이 입국자들의 직업이나 입국 목적에 상당히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선교방송을 위해 목사가 들어간다는 건 당치 않는 일. 그래서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거짓말 않고 입국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직업난에 '오디오 창작'이라고 기재했더니 관리가 그 '창작'이라 문귀를 물고 늘어지면서 그건 이데올로기에 관한 것이니 그걸 빼면 들어갈 수 있다는 조언(?)까지 해주는 것이었다. 출생지는 물론 서울이 아니고 남한도 아닌 남조선이라고 기재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보니 흘러나오는 경쾌

한 유행가의 가락에 그 가사는 '모주석 만수무강 하소서' 하는 내용이었으니 여러분도 알 만 하시리라 믿는다.

둘째는 그들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었다.

중국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탄다. 보안상의 이유도 이유려니와 택시는 비싸다. 또 장거리는 짚값의 기차를 이용한다.

지도자인 성도 한명이 하남성에서 광동성까지 기차로 여러 날 고생을 하면서 약속된 장소에 우리를 만나러 왔다. 그 목적은 단 한가지, 우리에게 가서 영적인 책자들을 얻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도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산둥성에 사는 한 자매가 상해로 카세트 녹음기와 테이프를 사기 위해 달려왔다. 그것들은 현지에서 너무나 비싼 물건인데 상해에서는 대만 사람들이 면세해서 들여와서 값이 싸기 때문이었다. 그 자매가 약속한 사람의 집에서 그 물건들을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찬양했다. 우리라면 그렇게까지 했었을까? 아마 우리는 자동차 한 대를 선물 받아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그들은 의에 주리고 목말라 있었다. 또 농촌에서는 성경이 무척 귀해 빌려 읽기도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60일내로 다 읽을 수 있도록 빨리 읽기가 구호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똑같은 한편의 설교도 우리와 그들에게는 그 반응이 천지차이가 난다. 이것이 어찌 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세째로 그들은 물질은 빈약하나 영적생명은 풍부하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증거하고 있다.

물론 중국에도 특히 대도시에 부자가 많아서 서울보다도 많은 수의 벤츠가 굴러다니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 한 예로 복건신학교의 강사로 있는 35세의 한 형제와 이야기 하면서, 아내가 실례를 무릅쓰고 한달 월급을 물으니 중국돈으로 170원(우리돈 약 2만-3만원)이라고 대답하였다. 우리 제작팀이 호텔 저녁식사 한끼로 지불한 돈이 170원이었으니까 그 정도가 어떠한지는 짐작이 가리라 믿는다. 상해를 제외한 많은 도시가 한국과 약 20년 쯤의 격차가 느껴진다고들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 성도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기쁨과 자신감이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이 간증할 때는 기쁨과 자신감이 얼굴전체에 우러나왔는데 그들의 성경공부나 이단을 판단하는 영적 분별력 또한 학식에 관계없이 정확했다.

네째로 그들에게는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신앙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지만 중국성도들에게는 강한 체험들이 이곳저곳에 살아 있었다. 물론 독선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질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이것은 중국성도들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인 것 같다.

병든 아들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병실 문밖에서 기도한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의 회생의 기적이라든가, 병든 자의 마음 같은 강한 초대교회적 역사는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다섯째, 그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연단된 경건이 있었다. 우리가 방문하고 있는 동안도 몇군데 가정집회가 정지되었고, 누구누구가 오래도록 소식이 없으며, 어떤 지도자는 식구들과의 가정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겁내지 않았다.



상해에서 우리는 남편이 인민대표로(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있으면서 책자나 테이프지원 등 전도자 파송을 돕던 한 초로의 부부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떠나와서 그만이었지만 그들 집에는 남편이 출장간 틈을 타 공안원이 들이닥쳐 집수색을 당하고 3개월이나 조사당하는 곤욕을 치루어야 했다고 한다. 다행히 그날 증거될만한 물건이 남아있지는 않아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이런 유의 예는 많이 있었다.

우리가 안부를 물을 때마다 그들은 전혀 겁내는 빛이 없었고 당당하고 담담하게 그들의 간증과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 주었는데 이런 그들의 용기는 그들이 늘 겪어왔던 고난과 핍박 속에서 단련된 것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특히나 그들은 철학적 설교가 아닌 십자가와 그 보혈, 예수님에 관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지금도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였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끝으로 만약 여러분이 중국성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게 된다면 다음 몇가지 사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을 맺는다.

첫째, 메모나 촬영 또는 어떠한 물증도 남겨놓지 않는 것이 좋다.

한 예로 저와 함께 간 안내인이 중국성도와 동행하게 되었는데 차를 탈 때나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 꼭 현지 성도들이 돈을 내거나 대접하게 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했으나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니 수궁이 갔다. 중국현지인이 외부인에게 무언가 줄 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만약 외부인이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가 돈이나 물건을 주어 받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경찰서에 불려가 추궁을 당한다는 것이었다. 왜 받았

는가, 혹시 이해 관계가 있거나 첩자로 이용당하지나 않았나 하는 의심을 원천적으로 받게끔 된다는 것이다.

둘째, 신분은 가급적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목사, 집사 심지어 어느 교단의 누구라고 밝히는 것은 가급적 피하라. 저도 그곳에서는 성도들과의 교제 때 주형제 라고만 밝혔다.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들도 우리에게 대해 필요 이상의 것을 알려들지 않았는데 이것은 만약 심문을 당한다 해도 말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한 자구책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

모임안내

〈중국선교 세미나〉

일시: 1992년 4월 27일 오후7시
장소: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관
강사: 김성태 교수(총회신학대학원 선교학)
제목: 중국선교의 현황과 전망

〈회원워크샵〉

일시: 1992년 3월 30일 오후7시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강사: 이영순 자매(선교신학원)
제목: 현대중국 정치사상 이해

〈정기철야기도회〉

일시: 매월 세째주 화요일 오후10시
(3월 17일, 4월 21일, 5월 19일)
장소: 온누리교회 2층

〈복음전도단기도회〉

일시: 매월 세째주 목요일 오후7시
(3월 19일, 4월 16일, 5월 21일)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용서에 대하여

안병국 교수(방송대 중문과)



2주간에 걸쳐서 태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이 글을 쓰게 되어 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느낀 점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태국에 있는 동안 여러 군데 부지런히 돌아다녔지만 가장 나의 인상에 남는 곳은 방콕에서 서쪽으로 130. 버마와의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인 칸차나부리라는 곳이었다. 여기에는 영화 콰이강의 다리로 유명한 콰이강의 철교가 있는 곳으로 그 근처에는 아름다운 꽃에 둘러싸인 채 7000여 명에 가까운 영혼이 잠들어 있는 연합군 공동묘지가 있었다.

이 묘지에는 전쟁중 일본군의 타이 버마 철도 건설에 혹사당하여 병들거나 영양실조로 죽은 연합군 병사가 잠들어 있었다. 묘지는 잘 손질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꽃들이 사방에 피어 있는 모습은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넓은 잔디 가운데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는 묘석을 보노라니 절로 숙연해졌다. 묘석에는 사망한 병사의 성명, 나이, 출신지, 국적, 직업, 종교 그리고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적혀 있었다. 사망한 병사들의 나이는 대부분 30살 전후였고, 20살의 나이로 사망한 병사들도 눈에 많이 띄어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묘석을 꼭 둘러보는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사망자의 비석 가운데 95%의 비석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

었다.

제2차세계대전중에 일본군은 버마 인도 진공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타이 버마 철도는 이 작전의 육상보급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본래 철도의 건설이 무리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이다. 일본군은 습도가 높은 열대림에서 빈약한 식사와 열악한 위생상태 속에서 연합군 포로를 혹사하여 대부분이 과다한 노동으로 질병 특히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연합군 포로들의 생활에 관한 수기와 출판물을 보면 이러한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봉사하는 사랑의 역사가 캠프 안에 퍼져나갔다고 한다. 이러한 실화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영혼의 베틀』이라는 책을 읽고서 감격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캠프 안에서 모인 몇 사람의 헌신적인 크리스찬의 기도로서 시작된 그 모임이 활화산처럼 전체 캠프에까지 번져 결국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산 소망의 역사를 일구어내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숨지기 직전에 남긴 유언들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포로들이 숨지기 직전에 그가 평소에 좋아하던 성경구절을 남기면서 “forgive”(용서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관내 견학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나무로 된 팻말에도 "forgive but not forget"(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학대했던 일본군도 용서하였으며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과 현실을 받아들이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못박던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용서하셨던 그 모습으로 성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용서라는 의미를 묵상해 보았다. 내 마음 속에 가족들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가? 주위 교회와 학교 이웃에 오랫동안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용서의 마음은 인위적이나 마음 속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한국 교회의 분열과 교권다툼, 교회내의 반목 질시 등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용서의 모범을 망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원수도 용서하게 된다는 것을 연합군 포로들이 묻힌 묘원의 비석들을 둘러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었다. ☹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주시듯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 잠시라도 마음에 원한을 품는 일 없이 즉시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온전히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 한 번 용서했으면 결코 지나간 일을 들추어내지 않고 모든 것을 물에 흘려 보내듯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 진정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무례나 모욕을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과 접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십시오.

· 제 자신도 많은 잘못을 저질러 이웃의 용서를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모조록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 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이전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 몇 번이고 제한 없이 용서하는 인내심을 부어주십시오.

· 주님, 이웃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시듯 저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J. 갈로의 『사랑의 기도』중에서)

목사와 기업을 겸했던 뛰어난 목사

宋嘉樹

(서울대중국어성경반 제공)



宋嘉樹(1866-1918) 목사는 清末 民國 초에 걸쳐 목사와 기업가로 활동했던 걸출한 인물이다. 그는 중국의 혁명에 관여하였으며 자녀교육 방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여러 방면에서 여러가지 일을 맡아 대단히 훌륭한 성과들을 쌓아 올렸다. 宋 목사의 또 다른 이름은 宋耀如이며, 山西 출신이다. 그의 선조는 전란을 피해 남쪽으로 이주해 왔다. 宋 목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중국의 최남단인 海南島의 文昌이란 곳으로 이주하였다. 文昌이라는 지역은 밖으로 나가 직업을 구하는 전통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화교마을(僑鄉) 중의 하나였다. 宋 목사는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

하였으므로 그가 9세 되던 해에 형과 함께 동인도제도도로 보내졌다. 거기서 3년을 지낸 뒤, 光緒 4년(1878)에 외삼촌이 그를 양자로 삼아서 미국 보스톤으로 데리고 갔다.

미국에 온 뒤, 宋嘉樹는 그의 양아버지가 개설한 絲茶店에서 일을 배웠다. 일정기간 동안 일을 배웠으나 자신의 취향이 그와는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가정을 떠나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는 미국 해안 방위대(U.S. Coast Guard)에 입대하여 Dibert Gallatin호의 순시선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순시선의 선장이름은 Eric Gabrielson이었는데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는 평소에 宋嘉樹를 여러모로 잘 돌봐 주었으며 그리스도의 기쁜소식을 전하여 주곤 하였다. 후에 Eric은 베카주의 Wilmington 군항으로 자리를 옮겨 Schuyler Colfax호의 선장이 되었다. 두 사람의 깊은 우정으로 인하여 宋嘉樹 역시 순시선의 일을 그만두고 Eric을 따라서 Wilmington 군항으로 가서 Schuyler Colfax호에 들어가 근무하게 되었다. 선장의 인도로 宋嘉樹는 마침내 光緒 6년(1880)에 Wilmington 5가에 있는 웨슬리종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고 난 뒤, 그는 신학을 공부하여 장차 고국에 돌아가 선교사 일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소망은 아주 빨리 성취되었다. 과거 남북전쟁 당시 장군이었던 J.S.Carr 가 그의 지원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장군이었던 그는 그 당시 大商이었다.

이에 宋嘉樹는 光緒 7년(1881)에三一학원(Trinity College)에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는 Braxton Craven박사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다음해(1882) 다시 테네시주에 있는 Vanderbilt대학의 신학원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으며 3년 뒤에(1885) 졸업하였다. 宋嘉樹는 본래 미국에 계속 남아 의학을 공부하여 의료선교사로서 본국에 돌아가 봉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Carr장군도 계속적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교회 관계자들은 모두 그가 편안한 미국생활에 안주하여 중국으로 선교하겠다는 자신의 서원을 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당초의 계획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미국 남방웨슬리종파가 세운 감리회에 가입하였다. 1885년 그는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동시에 이 감리회에서 중국으로 파견한 선교사가 되었다.

光緒 12년(1886) 宋 목사는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상해에 도착한 후 그는 자신이 고국을 떠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던 까닭에 중국어와 방언을 다시 배우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다. 후에 감리회에서는 그를 蘇州교구의 崑山지역으로 파견하였다. 몇 년 뒤(1889) 다시 上海 교구의 七寶지역으로 옮겨서 선교사역을 하였다. 선교사역을 하면서 틈을 내 몇몇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胡適은 바로 그가 가르친 학생 중의 하나였다.

光緒 18년(1892) 宋 목사는 감리회에서의 사역을 그만 두었다. 그만둔 원인은 감리회에서 그에게 지급한 봉급이 매월 15달러에 불과했다는 데 있었다. 그것으로는 가족을 먹여살릴 수가 없었으므로 宋 목사는 누차 봉급의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그는 사직을 하였던 것이다.

비록 감리회의 목사직을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경건하고도 활력있는 크리스찬이었다. 그는 기독교와 관련된 기업에 손을 댔다. 美華書店을 열어 중국어 성경을 전문적으로 인쇄하였으며 밀가루 공장에 손을 대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기

독교남청년회(Y. M. C. A)를 창설하였으며, 미국 성경공회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모든 일에 있어 그가 보여준 탁월한 능력은 그를 상해지구에서 가장 탁월하고 영향력있는 웨슬리종파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는 또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하기도 하였으며 웨슬리종파의 각 교회에 대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다. 그의 부인 역시 상해지역에서 대단히 뛰어난 교회일꾼이었다.

그의 가정은 항상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中外 각 곳으로부터 오는 선교사들을 맞이 하였다.

宋 목사는 걸출한 교회지도자요, 성공적인 사업가였던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혁명에 대하여 대단히 관심을 가졌다. 일찍이 光緒 20년(1894) 상해에서 孫中山 선생과 교분을 가졌으니 孫中山 선생의 혁명사상을 들은 최초의 사람이라 할 만한 인물이었다. 후에 그는 줄곧 孫中山 선생의 열렬한 지지자요, 친밀한 동지가 되었다.

宋 목사는 光緒 13년(1887)에 결혼을 하였다. 부인 倪氏는 그 모계가 明朝의 명신인 徐光啓의 후손이었다. 서씨 집안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천주교 집안으로서 대대로 신앙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宋 부인의 부친은 성공회 신도였다가 사위를 따라서 개신교로 개종하였다. 宋 목사 부부는 아름답고 원만한 가정을 가꾸었다. 調齡, 慶齡, 子文, 美齡, 子良, 子安의 여섯 명의 자녀를 두었다. 宋씨 부부는 자녀들의 모두가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하였다. 후에 이들은 학업을 마치고 모두 중국에 돌아와 사회에 헌신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宋嘉樹 목사는 民國 7년(1918) 5월 3일 위암으로 상해에서 별세하였다. 향년 53세였다. 그는 일생동안 웨슬리종파의 교회에서 탁월한 공헌을 남김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民國 31년(1942) 미국 베카주 Wilmington 지역에서는 宋嘉樹 목사의 기념관을 봉헌하여 이 훌륭한 중국 크리스찬을 길이 기념하였다.

(출전: 中國基督教人物小傳 上卷)

북경의 正月

(번역부 제공)

새해가 되면 남자들은 단정히 옷을 입고 친척 집이나 이웃에 세배를 가게 되는데 세배할 때는 拱手(가슴께에서 두손을 맞잡고 그 손을 얼굴 앞으로 들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펴면서 손을 내리는 인사) 하면서 “新禧, 新禧” 또는 “拜新年”이라고 말해야 한다. 또 집집마다 「糖茶」를 준비하여 세배객을 접대한다. 이외에도 설을 설 때 먹게 되는 음식으로는 만두와 年尻라고 불리는 설 떡이 있는데 찹쌀로 만든 단 음식으로 윗부분에는 대추를 얹어 놓는다.

각 사원 「開廟」(사당에서 공양하고 재를 올리는 시기)로 말미암아 굉장히 떠들석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白雲觀, 大鍾寺, 關帝廟, 東嶽廟 등이 특히 두드러진다.

새해 초하루부터 15일까지를 「廟甸」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북경의 변화가인 前門外의 琉璃廠에서는 이때에 영업을 시작한다. 琉璃廠이란 古翫나 畫, 골동품 등을 파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싼 값에 좋은 골동품을 사려면 이때에 이 곳에 와서 물건을 골라 사기에 편리했다.

새해 초이틀은 財神祭를 지내는데 집들마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이른 아침 제물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낸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광안문 밖의 財神 사당으로 가서 향을 사르며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신상 앞에 놓인 元寶(값싸게 만든 말 발굽형의 은)를 집으로 가지고 와 붉은 천이나 종이에 싸서 침상 밑에다 놓아 두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잘 벌리게 되리라는 뜻에서이다.

초닷새를 「破五」라고 부르는데 이날부터 새해 동안의 각종 금기가 모두 풀리기 시작한다. 여자들은 초하루부터 초닷새까지 바늘을 사용하

안되었기에 이날을 일컫어 「忌針日」이라 했다.

일반 상점들도 초닷새 이전까지 잠깐 휴업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초엿새가 되어야 비로소 집안일이나 바깥 일들을 할 수가 있지만 이때에도 새해기분은 여전하다.

초파일 「順星日」이라고 부른다. 이날에 못 星神이 강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들이 빛나기 시작할 즈음 하루 전에 미리 마당 한 가운데 차려 놓은 쟁상의 제물들로 못 星神을 제사한다. 좀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아직도 「星神與兒」(못 星神의 채색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참깨대 위에다 놓고 태우게 되는데 이때에 하늘 위의 별빛이 투명하고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다.

13일에서 17일까지를 「燈節」이라고 하는데 상점이나 사원 앞에는 각종 본뜬 문양의 등초롱을 장식하게 된다. 중앙공원의 「氷燈」(얼음을 가지고 사람이나 새, 짐승, 꽃 모양으로 만든 등초롱)이 어둠 속에서 꿈속처럼 비친다. 15일은 元宵節로서 이날에 사람들은 元宵(정월 보름날 먹는 식품으로 그 속에 소가 들어 있고 새알심 모양을 하고 있다.)를 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 먹는다.

元宵節은 燈節의 중심적인 날로서 바로 滿月日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을 새해의 마지막날로 생각하고 새해기분을 한껏 고조시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죽소리가 요란한 거리를 구경하면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元宵節을 지내게 되면 지난해 설달 23일의 小過年(부뚜막 神에게 제사지내는 날)으로 시작해서 약 1달에 걸친 북경의 정월 행사는 마감을 하게 된다.

(「中國民俗學」 중에서)

중국어로 찬양을!

祢信實何廣遠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447장)

1. 祢信實何廣遠!我神我天父!在祢永遠無有變動踪影;
 2. 春夏秋冬輾轉變換而不停;日月星辰空中穩定運行;
 3. 我罪孽皆赦免,永遠享安寧;祢長與我同行,安恩引領;

5 6 7 | i. 7 6 | 5 4 3 | 3 2- | 6 7 i | i. 5 5 | 3 3 2 | 1--

千萬載不更改,憐憫長豐盛;正如太初以前,代代咸同。
 宇宙天地萬物都為祢見證,同顯明祢永恆慈愛精誠。
 為我明日盼望,今日之權能;賜我福樂無量,日更加增。

5 5 2 | 4. 3 3- | 6 6 3 | 5. 4 4- | 5 6 7 | i 5 6 | 7 i 6 | 5-

祢信實何廣遠! 祢信實何廣遠! 清晨復清晨,恩慈更顯然;

5 6 7 | i. 7 6 | 5 4 3 | 3 2- | 6 7 i | i. 5 5 | 3 4 7 | 1--

我所需用皆蒙祢預備完全;祢信實真廣遠,仁愛無邊!

우리말 가사: 1.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후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한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만족한 삶 새길을 따라서

격렬한 운동에 뛰어 들었던 한 소년이 20년이 지난 후 그의 과거를 회상해보고는 탄식을 금치 못했지만 다행히도 그는 생명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체험을 갖게 되었다. ————— 編者

나는 중국 북경에서 미국에 온 의사이다. 2년남짓하게 무신론자로 지냈으나 몇 차례의 받아들임과 이해를 통해서 점점 기독교에 흥미가 생겨났고 마침내 주님을 영접하기에 이르렀다. 예수그리스도의 대가정 속에서 새 식구가 된 나는 이 큰 기쁨을 나의 새 가족들과 나누고 싶다.

나의 어린 시절은 문화대혁명의 악몽 속에서 흘러가 버렸다. 공산당의 쇄국정책과 우민정책은 전체인민을 극도의 망상으로 내몰았으며 인민들도 나날을 어리석은 충성경쟁과 투쟁속에서 보냈다. 위대한 한 지도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했으며 유토피아식의 이상을 위해서 결국 인간성을 상실한 채로 서로 죽었다. 나 자신도 역시 전에 모주석의 홍위병에 제일 먼저 가

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몰래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중학시절에는 모 주석의 혁명노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몇 시간이나 대설이 휘몰아치는 산에 오르고 재를 넘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비판대회상의 사상발언을 따를 수 있기를 바라는 일념에서 였다.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사람들은 점점 악몽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이전에 걸던 길이 어처구니 없는 길이었으며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중에는 진학하고 공부하는 것이 돌연 젊은이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온 정성을 다해 밤낮으로 노력한 끝에 결국 명문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다. 이처럼 행운아가 된 나는 과거를 청산하고 스스로 이미 이 세계를 피똥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어떤 주의나 이상이나 미래도 모두 머리 속에서 제거해 버렸다. 이 세상에는 자신만이 자신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자신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정신적인 추구나 이상을 모두 버린 후에 성

실하게 각고노력한다면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졸업 후 북경의 한 병원에 배치되어 의사가 되었다. 오래지 않아 결혼도 하여 가정도 꾸리게 되었다. 떳떳한 직장에 행복한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물론 친구들마저도 내가 생활상에서 더할 수 없는 만족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 역시 만족을 느꼈던 때도 없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기쁨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내심에는 무언가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생겨났다. 이러한 느낌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졌고 나중에는 어떤 고통까지 느끼게 되었다. 사는 것에 점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자 나는 매일의 생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공산당에 가입할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높은 수준의 보고서를 써 낼 자신이 없었다. 민주당파를 보아도 모두 다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어서 실제로 들어갈 필요도 없었다. 이러했기 때문에 마음 속

에 닥친 두번째의 위기는 줄곧 나에게 큰 번민을 안겨다 주었다.

1988년 미국에 왔을 때 비행장에 마중 나와준 미국친구는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이었는데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들의 사랑과 선량함과 삶에 대한 낙관적이고 안정된 심리상태는 기독교인에 대한 무한한 흥미를 자아내게 했다. 나는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전에도 교회생활에 뛰어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수십 년 간의 무신론 교육의 영향으로 자꾸 주저하는 마음이 생겼

고 회의까지도 일었으나 그래도 교회에 갈 생각을 버린 적이 없었다.

아마도 어떤 힘이 줄곧 나를 그토록 끌어당겼는지도 모른다. 결신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도 주위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해서 필시 세상과는 다른 사랑과 힘으로 이런 신도들이 생겨나게 했으리라 나의 신념이 굳어지곤 하였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생긴 2년 동안 교회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알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도 점점 이해가 깊어졌으며 하

나님에 대한 이해도 분명해져 갔다.

지금에 이르러 나의 죄와 옛날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주의 성령이 나의 새 생명에 충만하여졌는데 전에는 이러한 평안함과 만족을 누린 적이 없었다. 내일의 상황이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주께서는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은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완전한 돌보심을 우러러 보기만 하면 될 뿐이다. ✎

《守望中華》101期(1991.3-4)

십자가의 영광

以擘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자들의 불법집회를 허용할 수 있었지? 이 일은 지금 반드시 지시에 따라 처리토록해서 위법적인 불법집회를 효과적으로 단속해서 다시는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 등록을 거부하거나 집회를 폐쇄해 버리시오!” 화둥지방의 어떤 지역의 정부관리가 하급관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자 지방관리는 곧 가정교회를 살살이 조사하여

집회를 금지시켰다.

한 집회점의 책임자가 여러차례의 권유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집회를 가졌다.

그러자 간부들의 업무회의에서 이 집회점을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하던 중에 어떤 고위간부가 나서서 말하기를 “여러번 권유했는데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 곳을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집회점을 해체하면 이후에는 골치 아프지 않게 될 거요.”라고 했다. 토론 끝에 나머지 사람들은 손뼉을 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내부문건을 돌려보게 한 후에 그에 따라 일을 해치우기로 했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리오! 해체하기 며칠 전에 그 고위간부가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 사이에는 신에게 노여움을 산 것이라는 의론이 분분하

었다. 그러나 정해진 기한 안에 일을 마치려고 어떤 간부가 집회점의 지붕에 올라가서 손수 십자가를 떼어 내려는 순간 이 간부의 목이 갑자기 굽어져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 간부의 집안사람들은 그의 목이 굽어진 데 크게 놀라서 황급히 그를 데리고 진찰을 받아 보았으나 병명을 알아내지 못하

였다. 여러 의사들이 진찰을 한 후 모두 고개를 내저으며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그의 목이 돌아간 것은 아마 목의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긴 것일 겁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할 것도 없지. 신령님을 모독하고 어찌 재앙을 받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1년 후 그는 여러 차례 병원

에 가도 낫질 않자 희망이 끊어진 나머지 이 크고 두려우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그가 다시 십자가를 집회점의 지붕에 꽂았을 때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그의 굽었던 목이 정상을 되찾았다.✠

《守望中華》第103期(1991.7-8)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世青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추자 마음의 눈이 뜨여서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은 선하고 자비하신 목자가 되어 주셨다. ————— 編者

암흑세계에서 자라난 사람이 빛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나의 육안(肉眼)은 빛을 본 적이 없었으나 심안(心眼)은 도리어 암흑세계를 연연해 하고 자신의 길로 가려고 하였는데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나를 찾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그가 돌보시는 양으로 삼으셨습

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은혜로운 손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바른 계획하심과 교묘하신 손길로 이 맹인의 길을 지시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목사에게 소개 받아서 교회에 속한 국민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나를 그곳에 보낼 생각이었지만 어머니가 헛소문에 미혹되셔서 나를 외국인인 세운 교회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일곱살 되던 해 어머니는 세상을 하직하시고 또 중일

전쟁을 만나게 되어 학교는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 목사님은 나를 위해 소개장을 한 장 써 주셔서 나는 비로소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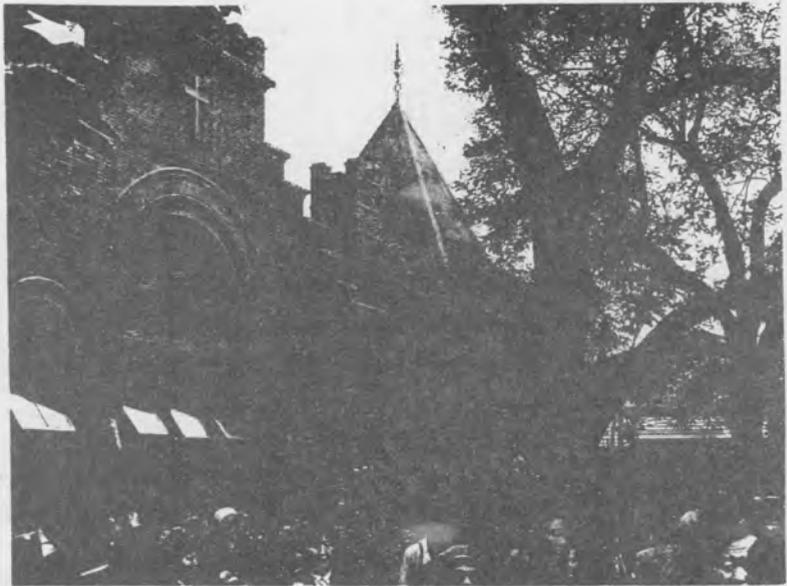
학교에서 나는 주를 찾은 적이 없었으나 14세 되던 해에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으나 마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례는 받았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며 불성실하고 여전히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닌 채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너를 귀중하게 보

시는데 너는 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느냐?” 1950년에 하나님의 종은 학교의 집회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이 내게 비추이자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서 홀로 방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였고 마음 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 들었습니다. 이로부터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는 언제나 달콤하였으며 비천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무한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증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주를 찾을 때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학교에서 실명한 학생은 털옷과 털 머플러를 짜서 돈을 버는데 나와 한 자매가 한조가 되어 뜨개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가 짜낸 털 머플러는 품질면에서 대단히 우수하였으며 들인 시간도 일반인에 비해 매우 적었습니다. 우리들의 작품은 일차 품평회에서 일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크리스찬의 상품을 일등으로 뽑을 수 없고 일등중에서 중으로 뽑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받아야 할 돈이 줄어든 것은 별로 개의치 않았으며 주께서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자라갈수록 주께 다가가는 즐거움이 더욱 커 갔습니다. 세상일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충심은 문혁을 통해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연약했으며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당신네 예수민은 사람들도 신고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나 신고할 수 있어요.” 지도자는 우리들의 참여를 부추겼습니다. 나는 그토록 바라는 일은 아니었으나 점점 듣고 싶고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주안의 형제자매들도 나를 아는 제하기를 꺼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성탄절때 형제자매들이 보내준 사랑이 담긴 과자들을 받기가 거북스러웠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지 않기 시작했고 기도마저도 의무적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차례 집회초청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초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나중에 지체들과 함께 기도회 참가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고 나의 죄와 합당치 못함을 깨닫게 되어 마침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80년부터 탕자인 저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형제자매들의 품안으로 돌아왔으며 하나님은 다시 이 패역한 죄인을 받아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게 될 때야 비로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守望中華》第103期(1991.7-8)



◇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 ◇

① 一天，有太多的人聚集在山上，
主耶稣就登上山，
开口教导大家。

登山宝训 산상수훈



②
他说：
“虚心的人
有福了，
因为天国
是他们的。”



③ 哀痛的人有福了，
因为他们必得安慰。



④ 温柔谦恭的人有福了，
因为他们必承受地土。



⑤ 渴慕追求
公义的人
有福了，
因为他们
必得满足。

① 하루는 허다한 무리가 산 위에 모였는데 주 예수께서 산위에 올라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②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③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④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땅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⑤ “의를 갈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만족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⑥ 怜悯人的人有福了，
因为他们必蒙神的怜悯。



⑦ 内心清洁的人有福了，
因为他们必看见神。



⑧ 使人和睦的人有福了，
因为他们必称为神的儿女。



⑨ 为正义受迫害的人有福了，
因为天国是他们的。



⑩ 人若因我的缘故辱骂、迫害、毁谤你们，
你们就有福了。
应当欢喜快乐，因为天国是你们的。”



⑥ “공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휼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⑦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⑧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⑩ “사람이 만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훼방하면 너희는 복이 있다.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한자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示, 示, 示, 示, 示

(하나님이) 계시할 · 시

‘보이다, 선언하다, 계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示자는 여러 다른 형태로도 쓰이며, 본래 제물을 차려 놓은 ‘제단’의 모양을 본뜬 자이다. 아담 이후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를 베푸는데서, ‘하나님’을 뜻하는 부수가 되었다.

“내가 주께 감사제(感謝祭)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시 116:17).

神, 神, 神

신(하나님) · 신

하나님[示]께서 말씀으로 명하시어[示] 만물을 펼치셨다[申].

示 + 申 = 神
 하나님 + 펴다 =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저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하시매 견고히 섰도다”(시33:6, 9).

靈, 靈, 靈

신령 · 령

삼위일체[靈]이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雨]을 운행하시며, 능력을 [巫] 베푸셨다.

一 + 一 + 一 = 雨 + 𠂔 + 巫 = 靈
 하늘 + 덧다 + 물 + 비 + 세 분 + 세 분이 일하심 = 신령 · 령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神 : 靈)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창1:2).

替, 𠄎, 𠄎
대신·체

성령(聖靈)은 성부(聖父)하나님과 성자(聖子)하나님을 대신하여 [替]하여 말씀하신다.

𠄎 + 日 = 替
두 분 말하다 대신하다

“보혜사(保惠師)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聖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14:26).

品, 𠄎, 𠄎
물품·품, 평할·품

물품(物品)이나 품행(品行)의 권위있는 기준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삼위일체 되

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

生, 𠄎, 𠄎
날·생

가로 세 획이 뜻하듯이, 하늘, 땅, 바다에서 생기[ノ]를 지닌 생물체가 나왔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창1:30).

造, 𠄎, 𠄎
지을·조

하나님께서 흙[土]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입[口]으로 그 코에 생기[ノ]를 불어 넣으시니 사

람이 말도하며[告], 걷기도[𠄎]하는 산 존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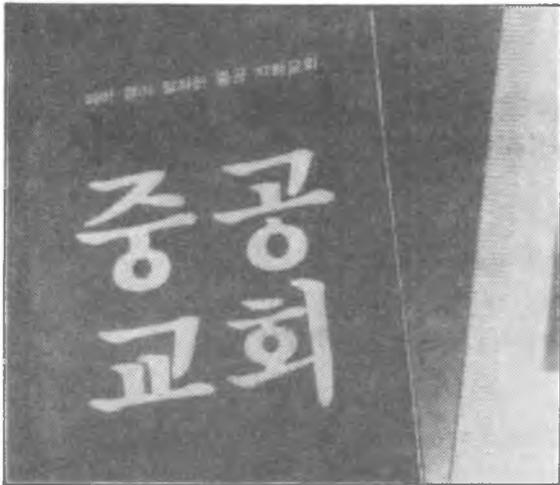
土 + 口 + ノ = 告 + 𠄎 = 造
흙 입 생기 말하다 걷다 지을·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2:7).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중에서)

『중국선교핸드북』과 『사랑의 혁명 중공교회』

(연구부 제공)



이번 중국선교관련 서적소개에는 홍콩의 중국교회연구센터의 조나단 차오 목사가 편집한 책을 본 선교회가 編譯한 『중국선교핸드북』과 일본 크리스찬신문사가 편하고 소련선교회의 김영국 장로가 번역한 『사랑의 혁명 중공교회』를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중국선교핸드북』은 조나단 차오 목사가 편집한 <The China Mission Handbook>을 원본으로 하여 일부분은 본선교회가 새로이 쓰고 번역한데다 많은 자료를 첨가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특히 이 책의 원본을 출판한 중국교회연구센터(中國教會研究中心: China Church Reserch Center)는 중국대륙의 교회현황을 연구하고 자료화시켜 중국선교에 관심있는 개인과 교회에 제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선교기관으로 조나단 차오 목사가 세운 선교회이다. 이 센터에서 격월간으로 내고 있는 《中國與教會》는 중국교

회에 대한 편폭이 있는 분석 기사를 싣고 있으며 <China Prayer Letter>는 그때 그때의 긴급한 기도제목을 싣고 있고 중보기도를 돕기 위한 <莫忘神州>도 역시 중국교회의 기도해야 할 제목을 신속히 성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정보지이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 부분은 본선교회의 작업으로 이룩된 부분이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중국개관」부분인데 중국의 일반적인 정보를 다루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중국선교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중국의 사회, 정치제도, 중국의 경제, 중국의 종교 등을 실었다. 제 2부는 제4장에서 제8장까지로 중국의 교회상황을 소개한 글이다. 내용은 5장에서 7장까지는 중국의 간략한 선교사를 분석적 측면에서 다룬 글로 조나단 차오 목사의 원판을 번역한 글이며 제8장은 CCRC의 연구원인 톰 로렌스 형제의 글로, 현재 가능한 중국선교의 이모저모와 최근 선교방법에 대한 제언이 소개되고 있다. 제3부의 제9장과 제10장은 중국의 각 성(省) 소개 및 소수민족 부분으로 본선교회의 여러 동역자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내용인데 각 성의 개략적인 종교실태와 그에 따른 적절한 기도제목이 실려 있다.

또 역시 부록으로 실린 「중국방문자에게 드리는 조언」, 「중국관계 주요문건」, 「중국관계참고자료」, 「중국의 신학교 일람표」, 「중국의 투옥성도」, 「중국개방지역 일람표」, 「중국의 헌법소문」, 「간체자 번체자 대조표」, 「한어병음표기법 대조표」, 「중국정부조직표」 등은 그때 그때의 필요에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사랑의 혁명 중공교회』는 일본 크리스찬신문사가 편하고 소련선교회의 김영국 장로가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의 역자 김영국 장로는 북방선교의 선구자로 러시아 선교나 극동방송에서 남긴 수많은 업적 외에도 중국선교 관련 서적도 많이 번역하였는데 이 책을 제외하고도 <中共宣敎의 문이 열리다.>, <붉은 대륙의 새벽>, <중공교회의 실상>, <공자 모택동 그리스도>, <대륙으로 보낸 하나님의 밀수꾼> 등 다수가 있다.

이 책의 주인공 마마팡은 중국 남부 하남성의 가정교회 지도자였다가 1981년 이후에는 출국하여 지금은 홍콩에서 세계에 중국의 교회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마팡은 그 자신 세번 투옥되고 20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다가 풀려나기도 했으며 식발당한 채 대중앞에 끌려 다녔으며 그의 장남 베드로는 죽임을 당했고 남편은 노동개조소에 보내졌는데 <대륙으로 보낸 하나님의 밀수꾼>의 많은 부분에서도 마마팡에 대한 글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중국 크리스찬 신문사의 기자가 마마팡과의 대화를 기록한 글로서 기자가 많은 서신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쓴 진실한 기록이다. 이것은 중국 가정교회가 걸어왔던 고난과 영광의 기록이며 이 책의 서문에 소개된 것처럼 왜 중공에 부흥이 일어났는가?, 가정교회의 실태는?, 박해의 실상과 신앙에 대한 승리의 현실,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의 입장, 중국교회의 필요와 자유세계의 교회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쓰여졌다. 이 책은 <6호문건>이 발표되고 교회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구체성이 결여되기 쉬운 중국교회의 상황을 손에 잡는 듯 분명하게 아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다만 이 책만을 보고서 모든 현재 중국의 모든 지역의 교회상황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든다면 중국교회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중국선교와 관련된 서적들의 목록이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중공교회의 실상>	싸일러스 장 著 김영국 譯	생명의 말씀사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CCL 編 HOPE 譯	전문인협력기구
<중국선교>	데이빗 에드니 著 김묘경 譯	IVP
<社會主義 中國에서의 敎會와 國家>	조나단 차오 著 中國語文宣敎會 譯	
<사랑의 혁명 중공교회>	일본크리스찬신문사 編 김영국 譯	생명의 말씀사
<中共宣敎의 문이 열리다>	폴 카프만 著 김영국 譯	생명의 말씀사
<붉은 대륙의 새벽>	싸일러스 홍 著 김영국 譯	북한선교회
<중공교회의 실상>	싸일러스 장 著 김영국 譯	생명의 말씀사
<中國의 예수가정>	보언리즈 著 편집부 譯	무실
<중국선교핸드북>	조나단 차오 編著 中國語文宣敎會 編譯	두란노서원
<中共宣敎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국복음선교회 編譯	
<공자 모택동 그리스도>	폴 카프만 著 김영국 譯	생명의 말씀사
<대륙으로 보낸 하나님의 밀수꾼>	브라더 데이빗 著 김영국 譯	생명의 말씀사
<허드슨 테일러>	로저 스티어 著 윤중석 譯	두란노서원
<내 사랑 황하를 흘러>	클레어 토레이 존슨 著	국민일보사
<작은 여인>	글래디스 아일워드 著 김병희 譯	전도출판사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C.H.Kang & E.R.Nelson 著 이강국 編譯	미션하우스

중국여행상식

정마리아 선교사

비록 짧은 여행이었지만 저의 경험을 통해 중국을 여행하실 분들, 특히 선교를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1. 여행중 도움이 되는 물건(만능 나이프, 커피믹스, 인삼차)

중국내에서는 기차 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만능 나이프(나이프 외에 포크, 병따개)는 장시간 여행중 과일이나 간식을 먹는 데 꼭 필요하고 커피가 있기는 있지만 믹스는 없고 가격이 비싸다. 기차를 탈 때도 과일이나 간식이 될 만한 것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2. 열차의 종류와 좌석

- 열차: ① 特快(터콰이) - 특급
② 直快(즈콰이) - 직통특급
③ 快客(콰이커) - 급행
④ 客(커) - 보통열차

- 좌석: ① 軟臥(루안위) - 부드러운 침대
② 硬臥(잉위) - 딱딱한 침대
③ 軟座(루안쥬어) - 부드러운 좌석
④ 硬座(잉쥬어) - 딱딱한 좌석
⑤ 艙座(메이쥬어) - 입석

좌석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軟臥는 경우에 따라 비행기 표값 보다 비쌀 수도 있다. ①번에서 ⑤번으로 갈수록 가격이 점점 싸다.



(자금성 안에서 악기를 타는 악사)

3. 기차표를 살 때

중국여행중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기차표를 사는 일이다.

우선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中國國際旅行社나 외국인이 묵는 고급호텔에 부탁해서 살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내야하고 또한 2,3일 전에 반드시 부탁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외국인은 ①軟臥나 ③軟座로 정해져 있어서 중국인의 2배는 물어야 하고 실제 중국인 서민의 실상을 보기 어렵다.

또 역전에 가면 늘 암표상인들이 있는데 터무니 없이 비싼 값을 요구한다.

차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몹시 비싸지만 차 타기 한두시간 전에는 깎아서 원래 값보다 조

금만 더 주고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때 그 표를 팔지 않으면 그냥 밀지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못 살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혹 ⑤没座 즉 좌석이 없는 표는 살 수 있다. 일단 没座표를 사서 탄 후 열차장을 찾아 외국인 또는 외국유학생인데 하면 차장이 적당한 좌석을 구해준다. 물론 그 표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

4. 신자들을 방문할 때

중국에서 성도들을 방문할 때, 더욱 비밀을 요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나 한사람의 방문이 그의 신앙생활에 해를 줄 수 있다. 호텔전화와 유학생 기숙사에는 거의 도청장치가 되어 있어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T.V를 틀어 놓거나 카세트를 틀어 놓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또 집으로 찾아갈 때도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버스나 자전거 혹은 걸어가는 편이 안전하고 부득이한 경우도 택시를 탈 때 방문지로부터 먼 곳에서 내리는 것이 안전하다.

5. 대륙성도들과 서신 왕래를 할 때

우편물 검열이 수시로 행해지고 물론 FAX도 암암리에 감시를 당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성도들의 주소도 따로 은밀하게 기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종교적인 특히 선교에 관한 내용은 감시의 요인이 된다. 이런 서신은 인편을 이용해야 된다.

6. 교회를 방문할 때

삼자교회를 방문할 때는 언제나 외국인만을 감시하는 삼자의 파견요원이 있기 때문에 책자를 공개적으로 나누어 주거나 공개적인 행동을 삼가해야 하고 방명록이 있는데 계속 선교사역을 원한다면 국명이나 도시명 그리고 필명정도로만 쓰고 구체적으로 기입을 안하는 것이 좋다.

처소교회를 방문할 때는 그 지역의 교우로부터 조언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호의를 베푸는 성도라고 해서 쉽게 접근하거나 친해지면 오히려 위협하고 그로 인해 다른 교우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7. 조선족을 대할 때

조선족인 중국교포를 만날 때 우리는 흔히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사람이라 착각하기 쉽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 흔히 비판하거나 흉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지저분하고 답답하고 게으르고 등등. 그러나 그들(조선족)은 중국사람이라는 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몹시 불쾌해 한다.

예를 들면 친부모와 양부모의 비유를 이야기 하는데 친부모는 물론 낳아준 것에 감사할 수 있지만 길러준 양부모에 대해 잘 키웠든 못 키웠든 감사해야 하지않는가? 하는 논리이다.

중국에 있는 교포들은 한국을 친부모 생각하고 중국은 양부모로 생각한다. 잘 살든 못살든 그들은 중국에 대해 감사하고 중국사람이라는 것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소한 일로 그들에게 불쾌감을 줄 필요가 없다. 가능하면 좋은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

최근중국동향

종교

* 중국 정부는 최근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마카톨릭 등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 간 수십 명의 성직자 평신도들이 체포됐다고 미국의 인권단체인 아시아워치가 발표했다.

아시아워치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모든 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공산당국은 서방 기독교국가가 중국에 대해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和平演變」과 연계, 탄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2.1.21, 국민일보 92.1.24)

* 전중국기독교회의(NCCC) 제5차 총회가 중국교회의 청년 지도력 강화와 전통적인 삼자원칙의 고수를 재확인하고 지난 1월6일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다. 1979년 기독교개혁시기 이래 가장 크고 광범위한 규모로 열린 이번 총회는 총 29개 성 및 자치구에서 2백73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교회발전을 향해'라는 주제로 일주일 간 열렸다.

총회는 지난 5년 간의 교회 활동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교회가 1985년 총 4천개에서 현재 7천개로 증가했으며 2만 이상의 회합장소가 세워졌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에서는 기독교의 사회 참여, 신학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룩한 성과에 대해 중국개신교삼자운동전국위원회(TSPM) 전총무 쉐 드룽의 보고가 있었다.

(한국기독교공보 92.2.15, 크리스찬신문 92.2.15)

* 5년 후 중국으로의 주권 반환을 앞두고 홍콩 국민들간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져가는 가운데 홍콩기독교협의회(HKCC) 총무 초만킹은 "홍콩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계속 홍콩에 남아 있으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에큐메니즘)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확산되고 있어 크게 고무된다"고 밝혔다.

(복음신문 92.2.9, 한국교회신문 92.2.16)

*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규제가 최근 다시 강화되고 있으며 교회의 활동이 비교적 자유스런 지역은 광둥성·하남성·강서성·흑룡강성·하북성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국은 20대 신앙인이 늘어나고 있고 개방화 및 도시현상이 빠르게 이뤄져 이와 관련된 선교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홍콩에 본부를 둔 극동방송 중국어방송부(대표 켄 로 목사)가 중국에서 선교방송을 듣고 편지를 보낸 청취자들의 성향을 분류, 집계한 결과 드러났다.

(국민일보 92.2.12)

*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1월 29일 종교를 이용해 중국을 전복하려는 '적대적인 외세'에 대해 재차 경고하고, 중국 지도부가 경제적으로는 시장개혁의 문호를 확대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서구 자본주의의 가치에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관영 인민일보는 강택민 총서기가 1월 28일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은 종교지도자들의 회합에서

“우리는 중국의 종교자유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해외 적대세력의 침투행위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강총서기의 이와 같은 발언은 최근 기독교 목사와 신자 수십 명이 체포·투옥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서방의 비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문사태 이후 계속해 온 기독교 탄압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크리스찬신문 92.2.22)

* 전중국기독교회의(NCCC) 제5차 총회가 중국교회의 청년 지도력 강화와 전통적인 삼자원칙의 고수를 재확인하고 지난 1월6일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다.

전중국기독교회의는 1954년에 창설된 TSPM과 1980년에 창립된 CCC로 구성된 중국 개신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매5년 또는 6년 마다 개최되어 왔다. (복음신문, 한국교회신문 92.3.1)

* 지난달 19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기독교아시아연구원에서는 중국선교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해 중국교회의 여성들의 활동상과 중국의 기독교 전파과정들을 다룬 세미나가 있었다.

현재 중국에는 9개교의 신학교가 있는데 학생수는 5백명 가량이고 이중 3분의 1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신학교 입학시험을 거쳐 입학하며 교회의 추천, 신앙적 행동등을 근거로 신학생을 선발한다고 한다.

한편 중국교회의 평신도 중 약 3분의 2가 여성인데 그들은 목사를 도와 자발적으로 교회일에 열심이며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한다.

(기독교연합신문 92.3.1)

* 최근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성경과 찬송가 신앙서적들을 가장 필요로 하며 중국정부가 인정하는 삼자(三自)교회 보다는 비공식 교회인 처소교회에 더 많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기적과 신유를 통한

체험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런 간증이 자체전도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중국을 방문, 현지 교계관계자들과 접촉하고 돌아온 주지호 목사(극동방송 중국어방송 담당)가 지난달 27일 극동방송공개홀에서 열린 「북방선교보고」에서 현지실태를 밝힘에 따라 알려졌다.

주목사는 『현재 중국선교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목회자의 절대적인 부족』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은 신학교설립과 지원으로 연결돼야 하나 현상황으로는 공식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국민일보 92.3.2)

* 중국의 청소년들 사이에 종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숫자는 지역에 따라 전체 청소년 인구의 3분의 1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특히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공산당 자체를 부정하고 중국의 국기인 五星紅旗에 경의를 표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일보 92.3.3)

* 임창지역에 새 교회당을 건축

운남성 난창강 유역에 위치한 임창지역에 금년 5월 새 교회가 세워졌다. 임창지역에는 3만여 명의 기독교신자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소수민족들이다. 이전에는 신자들이 매우 비좁은 한 건물에서 집회를 가졌었는데 이제 두 모임의 책임자인 구화이 콩 목사의 도움 아래 시가지 중심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天風》復總 106호 1991. 10)

* 중공, 미신서적 및 간행물의 판매를 금지

중공은 6권의 책과 19가지 간행물을 조사하여 판매를 금지시켰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책이나 간행물이 대중문화전파를 구실 삼아 미신사상을 퍼뜨린다는 것이다. 금지된 책과 간행물은 이를

과 운명에 관계된 서적과 고대의 예언학인 《주역》을 포함한 《관상술》과 《여자의 매력》 등과 같은 책들이다.

(《星島日報》 1991. 9. 29)

*** 광주교구에서 초급수도원 설립을 계획**

광주교구에서 초급수도원의 설립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수도원생을 양성, 화중지방의 무창에 있는 총수도원에 입학시켜 공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광주교구의 林秉良 주교에 따르면 이 교구에는 약 8명의 청년 천주교인들이 신부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광주교구에서는 수도원생이 되고자 하거나 사제식 양육을 받기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4가지의 기준을 정해놓았다고 한다.

이 4가지 기준은 초급수도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자원이어야 하며 또한 부모의 허락과 해당교구 사제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원한 청년들이 후일에 수도원 입학이 허락되지 않거나 중도에 퇴학이 되면 원래의 직장에서 반드시 이들을 다시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公教報》 1991. 10. 11)

*** 하북성 천주교에 출판기구가 설립됨**

하북성 천주교는 최근 천주교 심덕 편집실을 설립하여 먼저 교회의 전통적인 성서들과 현대의 작은 책자들 출판에 준비하고 있다. 현지의 한 직원은 하북천주교출판기구는 앞으로 본교구의 인쇄소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해외의 교회단체들이 출판 및 서적 각 방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公教報》 1991. 10. 4)

*** 서장의 종교업무가 정상으로 회복되다.**

《인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장에서는 종교정책을 실시하는 방면에 많은 일을 했다고 한다. 정부는 서장 자치구에서 문화대혁명 기간에 압수한 사원의 재물 5만여 가지와 동불상·법기 등 종교용품 3백여 톤을 되돌려 주었다. 동시에

2억여 원을 사원의 유지보수와 사원재물 보상비로 지급해 주었다. 또한 전통적인 종교절기와 중국불교협회 서장지회(분회)를 회복시켰으며 아울러 7개 지역(시)의 불교조직을 연달아 결성했다. 전체 서장자치구에서 615명의 종교계 인사가 각 급인민 대표회의 정부, 정치협상회의, 불교협회에서 직무를 맡고 있다.

그 밖에 종교활동·교무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의 보장, 승려와 일반신도들의 종교신앙의 자유권리를 존중·보호해 주는 것을 강조한 동시에 승려들에 대한 애국주의·사회주의 및 법질서의 준수교육을 가일층 강조하였으며 사원이 재정자립의 길을 가도록 고취시키며 사원이 자양을 목표로 한 생산경영을 하기를 희망했다.

(《人民日報》 1991. 10. 11)

*** 2명의 대륙 기독교지도자 석방**

중공은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들어 대륙의 기독교지도자 2명을 석방했다. 석방된 2명의 지도자는 소군교회에 소속된 麥賦人和 孫魯殿으로 이들은 1983년 당국에 대한 교회등록을 거절하여 「반혁명 죄」로 투옥되었다. 약 80세의 麥賦人は 1986년 8월에 12년형을 선고받아 구금되었다가 금년 5월에 석방되었는데 국제신문연락망 보도에 따르면 麥賦人は 2명의 미국국회의원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수감된 종교인사의 76명의 명단과 함께 그의 명단이 이봉 등 관원들에게 제출된 뒤 수일 후 석방되었다. 70세에 가까운 孫魯殿은 1986년 9년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12월에야 석방되었다. 중공의 이러한 사법적인 조치는 아직도 수감중에 있는 내륙의 많은 기독교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星島日報》 1991. 10. 25)

*** 중국종교위원회에서 종교정책시리즈를 보고**

전국정협종교위원회는 5대 종교단체의 책임자와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지도자를 초청, 북경의 신문·방송·출판계 책임자들을 위한 종교지식 및 종교 정책시리즈 보고를 하도록 했다. 전국정

치협상회의 부의장겸 종교위원회 주임이며 중국 불교협회회장인 趙樸初는 보고를 통해 정치협상회의 종교위원회의 직능은 당과 정부가 종교신앙 자유의 정책을 관철하고 각 종교의 신자들이 단결하도록 협조하고 또한 협상과 감독을 통해 의정에 참여하는 것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신문방송출판계가 각 종교의 역사·교의 및 각종교의 현재 활동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人民日報》 1991. 10. 22)

* 수재지역의 종교에 대한 통제강화

보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수재지역 수재민들이 종교로 전향하는 상황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수재지역의 기독교신자수가 꾸준히 증가하자 정부는 산둥·강소·안위·하남을 포함한 4개의 성 지역에서 교회의 저녁집회를 금지했다. 금지범위는 가정교회에만 그치지 않아 심지어 삼자교회의 집회까지 허락하지 않고 있다. 남방의 가정교회의 한 지도자가 해외선교단체의 목사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하북·하남과 산둥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재와 현지 전도인들의 열성적인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매우 우려한 정부가 기독교의 전파에 타격을 주고자 저녁집회 금지규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의 4개성내의 가정교회는 여전히 저녁집회가 계속되리라 믿어지며 다만 현지의 삼자교회가 이 규정을 실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또 이런 규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 나갈지는 알 수가 없다.

(《New Network International》 1991. 10. 11)

* 상해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게 타격을 줌
공안국(경찰당국)은 상해시의 내외국인 여호와 증인 신도들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 호주상인 1명을 강제 추방시키고 상해시 여호와 증인들의 대부분을 체포했다. 추방을 당한 이 상인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 중에는 60세 내지 70세 정도의 노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신은 20시간의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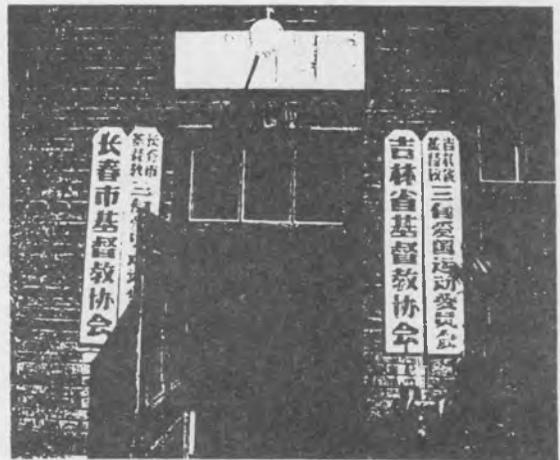
문을 받고난 뒤 풀려나 추방되었으며 중국당국은 그의 여권을 취소했다고 한다. 그가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았고 단지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성경을 토론했었는데 그 중에는 몇몇 간부들도 있었다. 당시에 그 관원들은 이러한 것이 불법이라는 뜻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가 하는 이야기에 상당한 흥미를 나타냈었는데 뜻밖에 그 얼마 후에 그는 체포당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1991. 11. 3)

* 정협(정치협상회의) 종교위원회에서 인권문제 좌담회를 개최

전국정치협상회의 종교위원회가 개최한 인권문제 좌담회에서 각계의 대표들은 《중국의 인권상황》 백서가 공포한 중국종교 활동상황은 완전히 사실에 부합된 것임을 회의석상에서 밝혔는데 대표들은 중국국민들이 현재 국민의 기본적인 「종교신앙의 자유」를 진정으로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文匯報》 1991. 11. 9)



(길림성에 있는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사무실)

* 6호 문서가 홍콩종교계에 충격을 줌

홍콩대학 정치학과 강사 梁潔芬 박사는 보도매체(잡지)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만약 중국정부가 2월초에 내어놓은 「6호문서」의 정신에 입각해 처리한다면 중·영연합성명과 기본법 중에 담

긴 중국 - 홍콩간 종교부분의 「회색지대」와 관련된 종교의 자유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소위 회색지대라는 것은 「3互」를 원칙으로 하는 중국과 홍콩간의 종교조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3互 원칙」이란 「상호예속되지 않음」·「상호불간섭」과 「상호존중」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면 약간의 「회색지대」가 나타날 것이지만 중공이 「6호문서」의 정신에 따라 다루게 되면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星島日報》 1991. 11. 4)

* 대륙이 광동성의 성탄절행사 통제를 강화

《英文虎報》 보도에 의하면 광동성정부는 최근 성탄절 행사가 날로 현지주민, 특히 젊은이들의 환영을 받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제정된 성탄절행사를 제한하는 문서에 따르면 그 내용이 교회 단체들의 성탄절기간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도 상인들의 성탄카드판매 및 학생들의 교회참가 또는 기타 성탄절 경축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광동성 주민들의 성탄절 경축 활동에 대한 열정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Hong Kong Standard》 1991. 11. 5)

* 천진의 한 주교가 석방되어 고구로 돌아옴

지하(비공식) 주교단 부의장 중의 한 사람인 천진교구의 李思德 주교가 6월에 석방되어 소속 고구로 돌아왔다. 李 주교는 1989년 12월 9일 당국에 체포되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는 줄곧 어느 한 도시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한다. 비록 李 주교가 1986년 주교로 위임된 후 계속 중국정부의 비난을 받아 왔지만 그의 사제 신분은 그래도 당국의 승인을 얻었으며 또한 정부가 인가한 공개된 교회(합법적인교회)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락받았었다.

(《公教報》 1991. 9. 20)

* 중국은 가까운 시일 안에 한국의 전자제품메이커 80개사가 天津공업단지에 진출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일본의 도쿄(東京)신문이 12일 天津 발로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天津 경제기술개발구(TEDA) 당국자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곧 한국 전자업체의 공업단지 진출에 따른 계약이 조인될 예정으로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92. 1. 13, 조선일보 92. 1. 13)

* 중국의 天津과 인천항간의 공중 및 해상 교통로 연결로 양측간의 무역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천진과 威海지구에 대한 한국의 투자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92. 1. 14)

* 韓·中무역협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올해 對중국수출이 20% 이상 크게 늘고 전시회개최 등 교역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92. 1. 23)

* 중국에서 열리는 한국상품전시회에 한국의 정식국호와 국기사용이 허용된다.

한국도 중국의 국호-국기사용 허용조치에 맞춰 중국기업이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때 중국의 정식 국호와 국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92. 1. 24)

* 中國과 北韓은 26일 평양에서 지금까지의 바터 무역(구상무역)에서 달러 결제방식으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한 새로운 정부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중국 관영 新華통신을 인용, 北京발로 보도했다.

(조선일보 92. 1. 28)

* 中國産농수산물에 국내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수수·메밀·녹두·팥 등 잡곡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中國産이다. 고사리·더덕 등 산채류도 마찬가지이며 中國 축제품의 대량유입으로 潭陽 죽가공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인삼·당귀 등 한약재 시장에서도 형편은 비슷하다. (동아일보 92.1.29)

* 한국 정부는 오는 2월 1일 발효예정인 韓中 무역협정의 다음단계로 中國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오는 4월 北京에서 열리는 亞太경제사회이사회(ESCAP)총회 이전까지 매듭지를 방침이다. (동아일보 92.1.27)

* 中國 三江평원을 농업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약이 31일 한국과 중국간에 체결됐다. 한국측과 중국측이 50대 50의 지분을 갖게되는 삼강평원 농업개발유한공사는 앞으로 15년 간 모두 3억 평의 농경지를 개간할 예정이며 1차로 오는 98년까지 1억 평을 개간한다.

韓·中양측은 앞으로 조성될 농장이름을 安重根기념 농장으로 하고 1차개발이 완성되는 시점에 안중근기념관도 건립키로 합의했다. (조선일보 92.1.29, 국민일보 92.2.1)

* 관세상 최혜국대우 적용을 골자로한 韓·中 무역협정이 1일 확인문서교환으로 발효됐다. 이에따라 품목별로 14~40%까지 높게 부과됐던 차별관세 대신 9~15%의 최혜국대우 관세가 적용돼 올해 對중국수출은 지난해 24억달러보다 2억~5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일보 92.2.1)

* 지난 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주춤했던 對 중국 투자가 올 2월 1일부터 발효된 韓·中 무역협정을 계기로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무역협정 발효로 그간 중국진출시 대만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제약요건들이 어느정도 해소돼 교역 및 투자여건이 대폭 호전됐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92.2.7)

* 우리 나라와 중국 山東省을 직접 연결하는 국제 통신망이 건설될 전망이다.

한국통신은 20일 한국 통신 초청으로 내한한 鄭萬升 산동성 우전관리국장 등 중국대표단과 한·중 통신망건설을 위한 협상을 갖고 직접통신으로 육양지점 선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92.2.21)

* 韓·中양국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北京에서 제3차 경제협정회담을 갖고 이종과세방지협정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상대국 조세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1~2개월내에 조세전문가의 상호 방문과 조세관련자료 교환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국민일보 92.2.22)

정 치

* 中國의 유력 일간지인 工人(노동자)日報는 10일자 사설에서 지난 89년 天安門 유혈사태 이후 중국을 휩쓴 「이념 통제」를 맹렬히 비난하며 「인민의 사상적 자유」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익명으로 게재된 이 사설은 정중하지만 명백히 자유주의적이고 反전체주의적인 어조로 「인민의 사상을 자유화하고 견해의 자유로운 발표를 촉진, 대중의 견해를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구호들을 반복했다. (국민일보 92.1.11, 한국일보 92.1.11)

* 錢其琛 중국외교부장과 다비드 레비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24일 양국간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문서에 서명한다.

중국과 이스라엘의 수교는 脫고립주의를 지향하는 양국의 외교정책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또 중동분쟁의 배후실세인 중국을 국제무대로 끌어내려는 미국의 이해도 깔려있다.

중국과 이스라엘간의 뒷거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것이 중동평화와 국제정세

에 큰 변수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일보 92.1.24)

* 지난 89년 天安門사태로 실각했던 趙紫陽前중국공산당총서기가 천안문사태와 관련된 「反혁명죄」에 대한 당의 조사결과 무죄임이 선언됐다고 北京의 믿을 만한 소식통이 23일 전했다.
(국민, 조선일보 92.1.24)

* 中國의 최고 지도자 鄧小平은 최근 개혁을 촉진토록 하기 위해 사상을 더욱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日교도(共同)통신이 25일 中國 다이제스트紙 「報刊文摘」을 인용, 보도했다.

교도에 따르면 鄧은 『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이 요망된다』고 밝히고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했던 10년 전과 다른 새로운 방법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92.1.26)

* 中國은 25일 대만이 駐서울대사관을 매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강한 분노를 표시하면서 매각 기도를 즉각 중단토록 촉구했다.

중국 관영통신 新華는 駐서울 대만대사관 건물이 淸왕조 집권시 건립돼 1905년부터 영사관 건물로 쓰이기 시작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은 보도에 대해 중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92.1.27)

* 中國 최고 실력자 鄧小平은 최근 현재의 군병력(3백3만명)을 3분의1 감축하는 것 등 人民解放軍의 개혁에 대해 2가지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日 교도(共同)통신이 28일 홍콩의 중국계 잡지 「鏡報」 2월호를 인용, 보도했다.
(국민, 조선, 동아일보 92.1.29)

* 개혁촉진을 위해 中國남부경제특구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최고 지도자 鄧小平은 경제개혁을 거부하는 관리들의 사임을 촉구함으로써 천안문

사태 이후 보수노선을 걸어왔던 중국이 개혁노선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분명히 시사해주고 있다.
(동아일보 92.1.29)

* 中國은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에 곧 가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서한을 美國정부에 보내왔다고 제임스 베이커 美國무장관이 5일 밝혔다. (조선일보 92.2.7)

* 중국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위해 軍의 규모를 현재의 약 3백만 명에서 2백만 명으로 추가 감축하고 7개 大軍區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고 중국문제에 정통한 홍콩의 시사일간 鏡報가 6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2.2.7)

* 중국의 최고 지도자 鄧小平이 사망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국내 혼란에 대비하여 비밀경찰이 「人民의 敵」을 납치·고문·압수·처형, 또는 암살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부법률인 소위 「비밀실종법」을 마련중이라고 홍콩의 더 스탠드紙와 星島日報가 8일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北京소식통들을 인용, 이같은 내부법률은 사회적 폭동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속대상자들을 비밀체포(납치), 감금, 고문, 즉결처형하는 등 비상수단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1933~37년 舊蘇聯 독재자 요시프 스탈린이 이 법률로 자신의 政敵 수백만 명을 「人民의 敵」으로 몰아 대속형을 단행했으며 지금은 北韓만이 이같은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일보 92.2.9)

* 中國 최고실력자 鄧小平은 지난 1월 南部지방을 시찰하는 동안 여러 차례 연설을 통해 개혁·개방 노선의 전면적인 전개를 강력히 호소하면서 보수파를 신랄히 비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4일 北京발로 보도했다.
(국민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92.2.15)

* 中國 최고실력자 鄧小平은 천안문사건에서 실

각했던 趙紫陽 前당총서기의 최상이 형사소추의 대상인 反혁명죄 등 중대한 것이 아니므로 당규 위반에 한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최근 표명했다고 日교도(共同)통신이 16일 신뢰할 수 있는 중국 소식통들을 인용, 北京발로 보도했다. (국민일보 92.2.17)

* 中國공산당은 올 여름 縣이상의 각급 黨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紀律검사를 실시, 부정부패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숙정할 것이라고 홍콩의 台裔系 신문인 星島日報가 20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2.2.21)

* 中國최고지도자 鄧小平의 개혁·개방주장이 黨의 기본노선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 보수파 지도자들이 개혁파에 대해 「反左派」 운동을 심하게 전개할 경우 中國의 사회주의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고 홍콩의 신문들이 2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2.3.3)

* 中國의 李鵬총리가 3일 종래의 보수 강경파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논리와 자세로 경제적 변화에 걸맞는 정치적 개혁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일보 92.3.4)

* 中國의 보수 강경파는 최고 실권자 鄧小平이 최근 연설을 통해 개혁을 촉진하라고 촉구한 데 반대하여 이 연설문이 당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방해공작을 했다고 중국 소식통들이 4일 말했다. (국민일보 92.3.5)

경 제

* 中國 共產黨은 13일 금년을 또 다시 경제개혁의 해로 삼아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中國共產黨의 이같은 태도는 그동안 시장경제 개혁 추진을 위한 노력이 부진했던 지난 3년만에 나온 것으로 당내 개혁파가 한동안 득세하던 강



(중국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옷)

경파를 물리치고 주도권을 재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조선, 국민일보 92.1.14)

* 중국은 27일 대외무역 흑자폭을 축소하는 한편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재가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작년 한 해 무역수지 흑자는 81억2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 액수는 7년만에 사상 최고로 흑자를 기록했던 지난 90년보다 1천만 달러 가량 늘어난 것이다. 대외경제무역부(MOFERT)의 劉向東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새해 무역정책 개요를 설명하면서 91년에 착수된 개혁정책들이 수입확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92.1.29)

* 揚子江에 세계최대의 댐이 건설된다.

중국은 특히 이 건설공사에 외국자금 및 기술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 대형 건설회사들이 이 건설사업에 벌써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다. 관심의 대상은 揚子江중류 湖北省 宜昌市 三鬮坪지역에 들어서게 될 三峽댐. (한국경제신문 92.2.20)

* 중국내륙의 농민들이 해안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무작정 유

랑길에 오른다. 개방·개혁 정책의 결과로 도시와 농촌간, 내륙과 해안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커지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언론들은 이들을 「盲流」(맹목적인 유민이란 뜻)라 부르며 이에 따른 실업 범죄 위생 등 사회문제가 급증,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 92.2.27)

사 회

* 中國은 여태까지 중국 우표들에 찍혀있던 「中國人民郵票」란 표지를 「人民」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中國郵票」로 변경, 25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을 壬申年의 새 우표에 사용한다고 발표.

중국당국은 또 「中國人民共和國」이란 국명의 漢字표기만을 사용해왔으나 올해 새 우표 발간부터 「CHINA」란 영어표기를 처음으로 삽입하기로 결정했다고 新華통신이 보도.
(국민일보 92.1.28)

* 단 1명의 자녀만을 낳도록 제한하는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은 외동으로 태어난 신병의 훈련을 어렵게 만들어 인민 해방군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가 13일 보도.

응석받이로 자란 외동 출신의 한 사병의 어머니가 자식의 옷을 빨아주기 위해 60km를 왕복하고 있다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외동 자녀들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보다 연약하고 제멋대로이며 가족에 의지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지적.
(동아일보 92.2.14)

* 중국은 많은 공무원들이 너무 게을러 국고지출과 신용거래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바람에 지난 91년 한해동안 8억 3천만원(韓貨 약 1천 78억원) 상당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입었다고 관영 차이나 데일리紙가 24일 보도.

(국민일보 92.2.25) 

☐ 선교도서 안내 ☐

- | | |
|-------------------------------------|--------|
|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
(전문인협력기구) | 3,000원 |
|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3,500원 |
| 3. 중국선교핸드북 (두란노 서원) | 4,800원 |
| 4.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 1,000원 |
| 5. 중국어성경번역소사 | 1,000원 |

☐ 교재 안내 ☐

- | | |
|------------------------------------|------------------|
| 1. 中國語 聖經
(신약+ 시편+ 잠언: 주음부호) | 7,000원 |
| 2. 使徒信經, 主禱文 외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 | 1,500원
1,000원 |
| 3. 經文背誦
經文背誦 Tape | 1,500원
1,000원 |
| 4. 睡夢鄉
睡夢鄉 Tape | 1,000원
1,000원 |
| 5. 飛行屋
飛行屋 Tape | 1,000원
1,000원 |
| 6. 初級中國語 I
初級中國語 I Tape(10개) | 3,000원
6,000원 |
| 7. 初級中國語 II
初級中國語 II Tape(10개) | 3,500원
6,000원 |
| 8. 中國文化二十講
中國文化二十講 Tape(3개) | 5,000원
2,000원 |
| 9. 我的第一本聖經
我的第一本聖經 Tape | 2,500원
1,000원 |
| 10. 新歌頌揚
新歌頌揚 Tape(7개) | 8,000원
5,000원 |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우편으로 신청해 주세요.
(TEL. 594-8038, 533-5497)

중국을 위한 기도제목

1.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금년을 경제개혁의 해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공산당의 이같은 태도는 89년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는 천안문 사태 이후 3년만에 나온 것으로 앞으로 중국의 변혁 조짐이 보이고 있다.
 - 중국이 조속히 개방의 길로 나옴으로 이들에게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2. 현재(조선일보 1월 21일) 중국은 기독교성직자 평신도를 반혁명 혐의로 체포하며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징역을 살리는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 지난 천안문사태이후 종교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이 변할 수 있도록
 - 특별히 고난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위로하심과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 신앙이 성숙되도록
3. 2월 1일부터 발효된 한중무역협정 對 中國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중국이 조만간 환율결정 방식을 기존의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對 中國 투자의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앞으로 열릴 중국시장에 은과 금(경제)만 가지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복음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 구체적으로 기업을 통한 자비량 선교사들이 들어가 선교사역을 감당하도록
4. 대만은 「三不通」 정책에서 벗어나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본을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의 중국본토의 남쪽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이로 인한 양국가의 무역량은 91년에 55억 달러로 이로써 중국이 대만의 4번째로 큰 교역대상국으로 부각되었다.
 - 대만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중국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5. 《인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서장자치구에서 문화대혁명 기간에 압수한 사원의 재물 5만 가지와 불상 등 종교용품 300여 톤을 되돌려 주었다. 동시에 2억여 원을 사원보수와 사원 재물 보상비로 지급해 주었다.
 - 우상으로 들끓던 중국이 공산화로 인하여 깨끗히 청소되었다. 그러나 이곳에 다시 우상숭배가 회복되고 있다. 중국영혼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기 전에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6. 중국의 수재지역인 성산둥, 강소, 안위, 하남의 4개성에서는 기독교 신자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기독교 신자의 저녁집회를 금지시키고 있다.
 - 저녁집회를 금지하는 조치가 풀릴 수 있도록
 - 더욱더 믿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늘어나도록
7. 현재 중국 동북삼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한국에 천진, 위해 등을 통해 수만명이 우리곁으로 다가오고 우리곁에 와 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황금어장을 만들어 주셨다.
 - 한국교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교할 수 있도록
 - 실업인들이 직장을 통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8. 조선족 교포 중에 한국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3개월 동안 양육받은 형제가 있다.
 - 이 형제에게 적합한 양육장소와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시도록
9. ○○동 사랑의 집은 교포 30여 명을 양육했으며 지금 7명의 형제자매를 양육중에 있다.
 - 작은 중국인 이 사랑의 집을 통해서 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교포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중국어사역자 고급훈련반 스케치

중국어 사역자 고급훈련 모임이 다시 계속되었다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워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중국어를 좀 자유롭게 사용해 봤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마련일 것이다. 더구나 중국선교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자 소망하는 중국어문선교회의 모든 회원들이라면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유자재로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교의 구비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중국어문을 접하고 계속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또 어느정도 훈련이 되어 있어도 지속적인 훈련이 없을 때 따라오는 것은 퇴보라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바로 이점이 고급훈련모임이 생기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일주일에 한번씩 갖는 이모임을 통하여 중국선교에 대한 보다 깊은 사명감을 일깨울 수 있다는 점이 큰 유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것은 중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로 전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사명감이 생겨나더라는 것이다. 사귀다 보니 정이 깊어지는 이치라고 할까?

새벽 6시.

결코 쉬운 시각은 아니다. 웬만큼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1주일에 한번이라도 모일 수 없

다. 그래도 눈을 비비고 걸음을 재촉하는 이유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리라. 아마 어떤 사람은 한두번 나와보고 기대에 못미쳐 할지도 모른다. 또 어떤 이는 너무 어렵다고 지레 겁을 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다.

천리길 중 한두 걸음 가는 중이니 너무 서둘지도 한숨쉬지도 말자고 말이다.

이 모임은 분명 하나님의 예비하신 '훈련의 기회'라고 믿는다.

또 기회란 잡는 자의 몫이라고 믿는다.

아무리 소망이 고상하다고 해도 한 걸음 내딛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리라.

이제 주님이 열어 놓으신 '훈련의 기회'에 자원의 걸음을 내딛는 형제자매님들이 속속 생겨나기를, 또 이들이 여기저기서 쓰여질 그 날을 고대해 본다.

(글·박혜영)

〈중국어사역자 고급반 모임안내〉

일 시: 매주 토요일 아침 6시~8시

장 소: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대 상: 중국선교에 관심있는 분으로서
중국어 중급수준이상

연락처: 594-8038, 533-5497

7404-573(이민선 자매)

정동해외선교훈련학교

〈제 1기 2학기 실천과정〉

▶ **취지** : 21세기는 분명히 세계 복음화의 시대이며, 이 웅대한 계획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특히 한국의 크리 스탠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선교의 일꾼이 될 선교사 지망자들과 해외선교에 관심이 깊은 분들의 양육과 훈련이 어느때 보다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기에, 선교 2세기를 맞는 정동 제일교회에서는 이번에 해외선교 훈련학교를 개설하여 이 절실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 **대상 및 모집인원** :

- ① 장·단기 선교사 지망자(평신도선교사 포함)
- ② 세계선교 관심자, 참여희망자
- * 모집인원 - 50명 내외

▶ 학기이수제이므로 1학기 미수료자도 등록가능

▶ **장소** : 정동제일교회 본당 2층 인형홀

▶ **시간** : (오후) 3:00 - 3:30 찬양

3:30 - 5:00 영어특강

5:10 - 6:40 제1강의

6:40 - 7:00 휴식

7:00 - 8:30 제2 강의

▶ **기간** : 3월 14일(토) - 7월 4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8시 30분까지(16주간)
(신청일 - 3월 14일)

▶ **수강료** : 일반 50,000원 / 학생 30,000원

▶ **교과과정**

날짜	강 의	강 사	날짜	강 의	강 사
3/14	개강예배 Q.T	김진두 목사 이성우 목사	5/9	타종교이해(비교종교) I, II	권형기 교수
3/21	한국교회 선교전략 I, II	전호진 교수	5/16	개인전도훈련 I, II	김동환 강사
3/28	선교운동사 I, II	서정운 교수	5/23	선교와 개인관리 I, II	김창환 총무
4/4	타문화권의 생활과 적응 I, II	백인숙 교수	5/30	팀워크훈련 및 리더쉽훈련 I, II	남진선 총무
2 차 리 트 트					
1 차 리 트 트					
4/11	정치와 선교 I, II	김국진 박사	6/13	개발선교 선교현장	황대연 선교사 손희명 장로
4/18	커뮤니케이션과 전도 I, II	안영권 교수	6/20	단기선교 I, II	송용호 목사
4/25	타문화권의 교회성장 I, II	염필형 교수	6/27	선교사의 정신건강 보건위생	박종철 교수 채영애 교수
5/2	타종교이해(공산권) I, II	유관지 목사	7/4	성경번역 수료예배	이용섭 선교사 김봉록 목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 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3~15).



*** 중국선교세미나**

그 동안 매월 선교회 사무실에서 열리던 선교 세미나가 새해부터 규모를 확대하여 격월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세미나로 2월 24일 한국 기독교 백주년기념관 1연수실에서 주지호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중국성도들의 영성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130여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정기선교세미나는 4월 27일(월) 저녁 7시에 김성태 목사를 강사로 “중국선교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관 4층 연수실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선교사 파송예배**

충신교회(김관태 목사)가 “사랑의 집” 사역을 위하여 파송한 박애린 선교사의 파송예배가 본선교회 고문이신 방지일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2월 24일 저녁 8시 30분에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정기 선교세미나에 이어서 진행된 이 파송예배에서는 그동안 본선교회 협력선교사로 있던 정선영 선교사가 소속선교사로 아울러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두분의 선교사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간사수련회**

간사들의 공동체 훈련을 위하여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수안보에서 간사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수련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백성호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 철야기도회**

매월 세째 화요일에 철야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철야기도회는 17일, 4월 철야기도회는 21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은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중국선교사역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합시다.

*** 복음전도단 기도회**

매월 세째 목요일에 복음전도단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기도회는 19일, 4월 기도회는 16일 저녁 7시에 본선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중국교포사역을 위한 이 기도회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워크샵**

격월로 홀수달에는 본선교회 회원 여러분을 위한 워크샵이 있습니다. 3월 워크샵은 30일 저녁 7시에 본선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이영순(선교신학원) 자매이며 주제는 “현대중국 정치사상 이해”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중국어사역자 고급반**

매주 토요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본선교회 사무실에서 중국어 사역자를 위한 고급반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어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참석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 편집 후기 □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2:11~12)

선거침을 맞이해 세상은 온통 어지러움을 더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
리에게 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상하던 나뭇가지에 움터오는 연한 순에서 새 생명의 숨결을 듣고, 거리에 나
선 어인들의 험악한 못차집에서 봄 내음을 맡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로 찍어 놓은 내용이 없어져 버리는 통에 힌들게(?) “중국을 주
계로” 16호 편집을 마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
러날을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 드립니다.

이번호에는 중국선교를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6호
문건”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기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목고를 보내주신 박종배 목사님과 안병국 교수님
께 지면을 통해 감사하 드립니다.

중국선교 전문지인 “중국을 주계로”가 중국선교의 좋은 길잡이가 되도록 동역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질정,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석)

「중국을 주계로」 헌금 안내

「중국을 주계로」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격월간
으로 발행되는 중국선교 전문지입니다. 중국선교에 뜻을 두고 있는 보다 많은 교
회나 개인에게 이책이 보급되도록 제작비(권당1,000원)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송금방법: 한일은행	081-167289-12-001	중국을 주계로
국민은행	084-01-0283-625	중국을 주계로
제일은행	378-10-063999	중국을 주계로

